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8151 사람들에게 빛이 필요하다.....	4
5836 영원의 원래의 빛이 발산되는 역사.....	5
8679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빛과 능력의 근원이다.....	6
3997 하나님을 떠난 일과 돌아오는 길. 빛과 어둠.....	8
7863 영원한 원래의 빛. 예수 그리스도.....	9
8065 메시아가 이 땅으로 임했다.....	11
8068 영원한 빛이 이 땅에 임했다.....	13
5646 가장 깊은 지식이 예수님께 계시되었다. 예수님을 따르라.....	15
8355 예수의 약속은 성취돼야만 한다.....	16
5988 삶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18
5592 나는 세상의 빛이고, 빛은 진리이다.....	19
8700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진리가 나온다.....	20
8669 사랑의 정도는 진리에 대한 기준이다.....	21
7857 이웃 사랑. 예수님을 따르는 일. 진리.....	23
6486 진리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 사랑.....	24
7945 진리의 빛이 길을 비추어 줘야 한다.....	25
8239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깨달음과 지식이다.....	27
7029 깨달음의 빛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	28
6931 세상의 지식은 지혜가 아니다.....	30
7771 너희는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31
3596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말씀이 전달됨.....	33
4969 빛과 죽음의 그림자. 거짓 빛과 하나님의 질병과 고난에 대한 도움.....	34
7514a 말씀의 능력. 날마다 행하는 혼에 대한 작업.....	35
7679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 연결을 이뤄야 한다.....	36
7489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37
5168 영의 깨우침을 받기 위한,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한 기도.....	38
6624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	40
6061a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빛이 있다.....	41
5931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나라로 가는 문이다.....	42
3195 빛의 영역. 서로 다른 빛의 세기. 하나님의 자녀권.....	43
6735 저세상에서 주는 빛.....	45
8083 저세상에서의 사역. 진리를 전하는 일.....	46
3774 높은 곳에서 오는 빛.....	48

사람들에게 빛이 필요하다.

B.D. No. 8151

1962년 4월 15일

영적인 빛이 어둠 가운데로 비추어 나간다. 내 말은 이 땅 아래로 울려 퍼지고 이 땅에 퍼져 있는 밤을 물리치게 한다. 왜냐면 내 말은 위로부터 비추어지는 어두운 영역을 뚫고 들어가는 빛이기 때문이다. 내 말은 영이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내 사랑의 증거이다.

만약에 빛이 그들이 처해 있는 위험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심연에 삼키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심연의 가장자리로 향하고 있고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내 대적자에 의해서 항상 더욱 심연으로 이끌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빛의 비추임 받아야만 한다. 인류는 이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볼 수 있게 돼야만 한다. 이 길은 단지 빛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운명에 맡긴다고 믿어서는 안 되고 그가 너희의 이 땅의 삶의 과정과 성공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나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모든 위험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원하는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영적으로 소경임을 항상 심연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지속적인 위험이 바로 너희가 거하고 있는 어둠이다. 왜냐면 너희는 너희가 누구인지 누구였는지 다시 어떤 사람이 되어 하는지 전혀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인 빛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단지 나만이 줄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한때 이 지식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두워진 상태는 너희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 너희가 단지 너희 안에서 진정한 빛이고 너희에게 깨달음을 주는 사랑을 불타오르게 하면, 이 빛을 얻을 수 있지만 스스로 이 빛을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 빛을 다시 선물해줘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는 사랑이 없이 살고 이로써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면, 나는 너희에게 빛을 비추어 줘야만 한다. 나는 너희에게 빛을 선물해 줘야만 한다. 나는 너희에게 비록 너희가 스스로 진리를 얻기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진리를 전해 줘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들 향한 내 사랑은 아주 크다. 이때가 종말의 때이다. 너희가 심연으로 빠질 위험이 더 크게 되었다. 너희를 이런 깊은 곳으로 추락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빛을 이 땅에 비추어 준다. 너희 스스로 진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너희가 벌어들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선물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내 대적자가 너희를 빠지게 한 영적인 눈먼 상태에 있는 줄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너

희가 저항을 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 빛을 비추어 준다. 너희가 이 빛을 영접하면, 너희 주변의 어두움은 떠나갈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르쳐 주는 너희가 가야 할 길인 사랑의 길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 말을 이 땅에 보낸다. 나는 너희에게 지속적으로 너희가 내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켜야 한다고 그러면 너희는 영적인 어두움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밤의 어두움을 벗어나서 낮의 밝음으로 들어선다면, 너희는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너희가 전적으로 어두운 영역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적으로 빛이 필요하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이 빛을 자유의지로 받아야만 한다. 너희는 이 빛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빛의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단지 작은 빛을 보내줄 수 있으면, 너희에게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만큼의 진리를 전할 수 있으면, 너희들 스스로 이미 더 많이 알기를 원하면서 이 빛의 비추임을 크게 만들 것이다. 이런 소원을 진실로 내가 들어줄 것이다. 단지 작은 빛 줄기가 너희 안에 들어야 한다. 빛의 주는 행복이 너희가 사랑을 행하면서 스스로 너희 안에서 빛을 불타오르게 만들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사랑을 빛의 근원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이제 내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키는데 도달했으면, 어두움의 밤은 물러난 것이다. 왜냐면 사랑의 빛이 밝게 밤 가운데 비추어서 밤을 물리치기 때문이다. 영의 태양은 떠오를 것이고 모든 위험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빛을 위로부터 이 땅에 보내야만 한다. 왜냐면 이 땅에는 단지 비추임을 주지 않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역광만이 종종 비추이고 있기 때문이다. 빛은 영원한 빛과 능력의 근원인 나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런 빛은 만약에 단지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으면, 진실로 모든 것을 꿰뚫을 것이다.

진리 안에서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빛은 비추어 질 것이다. 그는 내 말을 통해 진리에 합당한 광범위한 지식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이런 지식이 그에게 한때 그가 누구였는지 그가 다시 무엇이 되어 하는지 깨달음을 줄 것이다. 이 지식은 그로 하여금 진지하게 추구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면 그는 그에게 이제 밝고 선명하게 보여지는 확실하게 목표로 인도하는 완성에 이르게 하는 나와 연합이 되게 하는 길을 깨닫기 때문이다.

아멘

영원의 원래의 빛이 발산되는 역사.

B.D. No. 5836

1953년 12월 26일

너희가 의심 없이 나를 믿고, 나 자신으로부터 영원한 진리의 빛을 받기 원하면, 내 빛의 충만함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왜냐면 모든 빛이 원래의 빛에서 발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 빛은 빛이 아니고, 밝게 해주지를 못하고, 단지 더 깊은 어두움을 주기 위해 눈을 부시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영원으로부터 원래의 빛이고, 사람들의 심장 안에 밝은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빛의 광선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기를 원하고, 아직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길을 밝혀 주기를 원한다. 이로써 그들이 이 길을 위험이 없이 가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한다. 왜냐면 그들이 목표에 도달해야 하고, 나를 찾아야

하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영원한 원래의 빛과 하나가 되고, 영원히 축복되기 위해 더 밝은 빛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빛은 생명이고, 빛은 축복이고, 빛은 진리이다. 빛은 창조주와 그의 피조물 사이의 가장 깊은 연관관계를 아는 지식이다.

빛 속에 거하는 일은 신적인 상태에 거하는 일이고, 너희 모든 사람들이 도달해야 하는 상태이다. 왜냐면 신적인 상태가 되는 일이 원래 초기부터 너희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단지 나와 연결이 즉 원래의 빛과의 연결이 너희에게 빛이 비추는 일을 보장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을 수 있기 위해 나와 접촉을 이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나를 믿지 않고, 내 빛과 사랑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써 너희 자신을 열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는 절대로 빛에 도달할 수 없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열고, 너희 심장을 그런 그릇으로 준비하고, 너희 자신을 성전으로 만들어, 영원한 빛 자체인 내가 성전 안에 임재할 수 있게 되어 이제 내면으로부터 너희를 깨우치고, 내가 너희에게 빛을 발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너희 자신의 의지이다.

너희는 한때 타락한 죄를 통해 잃어버린 깨달음을 다시 얻어야 한다. 너희가 단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키면, 너희는 너희의 심장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그러면 너희는 너희를 고귀하게 만드는 모든 일을 행할 것이고, 너희 심장을 고귀하지 못한 갈망과 모든 종류의 덕성이 없는 점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할 것이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할 것이고, 공의와 긍휼과 온유와 평화와 겸손과 인내의 덕성으로 심장을 장식할 것이다.

너희는 항상 사랑 안에서 역사하고, 나를 너희에게 이끌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이 이제 더 이상 너희의 사랑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제 나를 얻었다면, 내가 이제 모든 충만함으로 내 빛을 너희 안으로 비취줄 수 있고, 그러면 너희에게 영원한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너희는 이미 내 나라에 거주하게 되고, 너희는 빛이 충만하게 된 가운데 영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는 이제 전에는 너희에게 숨겨져 있던 모든 것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영원히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빛과 능력의 근원이다.

B.D. No. 8679

1963년 11월 20일

단지 나로부터 빛이 나온다. 왜냐면 나만이 영원으로부터 빛과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 능력으로 창조가 되었고 내 끝없는 사랑이 비추어준 내 빛으로 채워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과 빛과 능력이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랑과 빛과 능력은 내 안에 근원을 두고 있다.

왜냐면 나 자신의 근본 요소가 사랑이고 빛이고 능력이기 때문이다. 내가 창조한 존재로서 너희의 근본 요소도 나와 같다. 왜냐면 내 신적인 사랑의 힘은 나 자신이 생각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형성된 존재에게 단지 똑같이 비추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최고로 높은 온전함을 생각할 때 이런 의식이 너희를 압도할 것이다. 왜냐면 인간으로서 또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로서 너희는 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창조할 당시 가졌던 온전함으로부터 자유의지로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온전함이 필요 하다. 너희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이 되어 있다. 깨달음의 능력도 약해졌다. 마찬가지로 한 때 너희가 무제한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랑뿐만 아니라 빛과 와 능력도 엄청나게 연약해졌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항상 너희에게 제공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에 너희가 온전하지 못한 동안에 다시 무제한으로 내 사랑과 내 빛과 내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온전함에 다시 도달하게 하기 위해 너희에게 정해진 소명인 하나님의 질서의 원칙인 사랑을 불타오르게 하고 사랑을 돌본다면 너희 자신이 다시 빛과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

나는 항상 근원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의 빛과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나와 연결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너희는 내가 신적인 사랑의 힘으로 비추어 주는 것이 어떤 축복인지를 알 수 없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직접 주는 사랑의 빛과 능력이 주는 크고 넘치는 행복한 느낌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크고 넘치는 축복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거나 적게 노력한다.

너희는 무관심하게 살고 있다. 왜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지 못하고 있고 너희의 이 땅에서의 과제와 너희의 목표에 관한 너희에게 내 사랑의 힘을 비추임을 비추어 주기 위해 나에게 속한 것이 실체가 되기 위해 너희들 스스로 단지 인정해야 하는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다는 것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지식에 너희에게 전해지면, 너희에게 이 지식은 믿을만 하게 보이지 않게 된다. 이 지식은 너희가 익숙해져 있고 너희의 모든 관심이 가있는 세상적인 관점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단지 그림자이다. 그러나 실체는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는 너희 혼의 상태이다. 그럴지라도 쉬지 않고 내 사랑의 힘이 흐르게 해주는 원천인 나와 연합이 됨으로써 사랑의 힘과 빛을 받게 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너희가 확실하게 더 이상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을 축복을 느낄 수 있게 너희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해 단지 너희의 자유의지만을 요구한다. 왜냐면 이런 축복은 이미 나와 긴밀한 연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결이 없이는 절대로 사랑의 힘이 흘러가는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나 만이 근원이라는 것을 항상 단지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부르면서 이 근원만을 찾아야만 함을 생각해야 한다. 이 근원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에게 항상 그의 사랑의 힘과 빛을 비추어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고 이제 너희에게 역사할 수 있기 위해 단지 너희의 자유의지만을 필요로 한다.

너희는 너희가 자유의지로 행했던 분리를 다시 포기하는 것이 너희의 과제요 너희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영원한 사랑 자신과 너희가 다시 자유의지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 너희에게 다시 빛과 능력으로 비쳐 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때 너희 자신들은 빛과 능력이 충만했다. 다시 말해 축복된 가운데 있었다. 너희는 다시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 왜냐면 인간으로서 너희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는 빛과 능력이 부족하다. 왜냐면 사랑이 그리고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거절했던 내 신적인 사랑의 비추임

이 너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이 한때 나로부터 창조되어 나온 존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희는 이미 너희의 부족한 상태를 통해 알 수 있다.

왜냐면 너희 지식과 깨달음의 빛뿐만 아니라 너희의 능력에도 큰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의지적으로 다시 영원한 빛과 능력의 근원에게 나아가 그의 사랑의 흐름을 구할 때까지는 인간으로서 너희는 온전하지 못한 피조물이다. 나는 너희의 구함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한때 나로부터 창조되어 나온 모든 존재에게 그들을 축량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되게 만들어 주기 위해 내 사랑의 흐름을 부어주는 것이 영원으로부터 내 목표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단지 빛과 능력 안에서 너희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너희에게 빛과 능력을 항상 또 다시 제공하고 부어줄 것이다. 왜냐면 빛과 능력은 축복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내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영원에 영원까지 해당이 될 내 끝없는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일과 돌아오는 길. 빛과 어두움.

B.D. No. 3997

1947년 3월 11일

너희는 빛의 나라에서 나왔고, 너희는 이제 너희 자신의 잘못으로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다. 그러므로 그가 기원이었고, 그로부터 시작된 존재는 다시 빛이 돼야만 한다. 왜냐면 빛은 발산되고 전파되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그로부터 나온 존재가 어두움 속에 빠졌고, 그의 빛의 능력을 잃었다. 왜냐면 존재가 원래의 빛을 피하기를 원했고, 영원한 빛의 원래의 원천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지 않았고, 자신이 빛으로 충만한 것을 깨닫고, 빛의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하나님과 비교해 강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빛이 충만한 존재의 무지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만들지 않았다. 왜냐면 그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지식이 그를 오만하게 만든 원인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오만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하나님을 향한 죄였다. 왜냐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더 이상 그들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높고 최고로 온전한 존재인 창조주를 과소평가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죄를 지었고, 어두움 속으로 빠졌다. 즉 빛이 없는 상태에 빠졌고, 모든 깨달음과 지식을 잃게 되었다.

하나님은 자신을 피하기 원했던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힘을 거두었고, 피조물의 오만한 생각이 일으킨 지식을, 그에게서 빼앗았고, 이로써 그가 누구였고, 무엇이 되어 하는 지에 대한 깨달음을 빼앗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에게 다시 지식에 도달하고, 그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왜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가 영원히 떨어져 있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존재는 하나님을 떠난 큰 죄를 벗어나, 빛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존재는 모든 오만함을 버려야만 하고, 하나님 가까이가려는 추구를 해야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빛과 사랑의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하고, 자신을 비추게 해야만 한다.

존재는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야만 하고 빛을 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육신을 입은 너희 사람들은 아직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산다. 왜냐면 너희의 의지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빛의 영역으로 들어 가지 못하고, 너희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너희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해결할 수 있고, 너희 자신이 만든 간격을 메울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가 자발적으로 떠난 원래의 상태로 인도하기 위해 그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면에서 너희를 돕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또한 자발적으로 원래의 상태에 다시 도달하려고 시도해야만 한다. 이런 원래의 상태를 너희의 의지에 반하여 너희에게 돌려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빛의 출처로 돌아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너희가 스스로 빛을 추구한다면,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깨달음의 상태에 들어서고, 알게 된다. 즉 너희는 잃어버린 지식을 다시 얻고, 너희는 이제 모든 오만함을 포기하고, 겸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다가간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사랑을 너희에게서 거두어 드리지 않았고, 너희를 다시 받아드리고, 이 전의 너희의 사명대로 너희를 인도한다. 너희는 풍부한 빛과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되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인간인 너희는 어둠을 피하고 빛을 구하라. 너희가 약한 빛이 비추는 곳으로 가서, 이 빛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 빛이 너희가 가장 높은 빛에 의해 둘러싸일 때까지 항상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부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 왜냐면 너희는 어둠 속에서 절대로 행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죽은 후에 너희는 어둠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깨달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빛에 도달하기가 훨씬 더 어렵게 될 것이고, 단지 빛이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시간을 활용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라. 하나님을, 영원한 빛을 추구하라. 하나님이 항상 또 다시 너희를 다시 깨달음의 상태로 되돌리게 하라. 사랑과 겸손으로 영원한 창조주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라. 하나님은 너희를 영접할 것이고, 너희가 한때 너희를 생성한 원래의 빛과의 결합을 통해 단지 얻을 수 있는 축복에 도달하도록 너희를 돕는다.

아멘

영원한 원래의 빛. 예수 그리스도.

B.D. No. 7863

1961년 4월 2일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전할 수 있게 하면, 너희가 심장 안에서 내가 직접 하는 말로 내 말을 영접하면, 내 영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 말씀이 너희가 축복되기 위해 필요한 진리를 너희에게 전해야 한다. 너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이 영의 음성을 통해 너희에게 전해질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너희를 가르칠 수 없는 동안에는 너희는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어떤 깨달음도 없다. 너희에게 내적인 빛이 없다. 그러나 나는 영원한 원래의 빛이다.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오는 모든 존재들은 이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축복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내 빛을 무한 가운데로 발산한다.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9/50

나는 나에게 대적하지 않는 모든 존재에게 충만하게 비춘다. 나는 내 빛을 이 땅에 비춘다. 나는 그들이 육신을 입기 시작할 때에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 나는 그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한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는 진리에 합당한 지식으로 인도한다.

이 지식은 그들에게 영원한 빛으로부터 나오는 다시 영원한 빛으로 돌아가는 빛을 의미한다. 이 지식은 아주 광범위하다. 왜냐면 이 지식은 내 모든 구원계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 창조의 역사와 창조된 존재들의 타락과 그들의 나에게 귀환을 포함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지식을 전하는 일은 너희가 한때 거절했던, 이런 거절로 인해 영이 가장 어둡게 되었던, 빛을 다시 너희에게 선물하는 일은 너희를 향한 내 아주 큰 사랑의 행위이다.

그러나 너희는 영원히 이런 어둠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너희에게 너희의 이 땅의 길을 밝혀주기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것을 알게 되면, 너희가 한번 인간으로 이 땅에 과정을 가야만 하는 원인을 제공했던 너희의 원죄를 알게 되면, 너희는 다른 모든 지식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나 자신이 영의 음성을 통해 너희에게 이런 지식을 전할 수 있으면, 너희는 이미 나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면 너희는 이미 너희를 한때 깊은 곳으로 이끈 자와 결별했다. 그러면 너희는 나와서 연합을 이뤘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너희는 자유롭게 되었다. 너희는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 너희는 의식적으로 나에게 향했고 너희의 의지는 다시 너희를 한때 생성되게 한 나에게 향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왜냐면 신적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되게 도왔기 때문이다.

그가 없이는 사탄의 종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이 절대로 가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신적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너희에게 내 사랑을 통해 비추는 가장 강한 빛이다. 왜냐면 이 빛은 너희의 축복을 정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빛으로 충만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가 인간 예수의 큰 공훈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가장 어두운 영으로 살 것이고 다른 빛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사람의 심장 안에 사랑의 빛을 밝혀 주기 위해 그들에게 높은 곳을 향하는 길을 비추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원래의 빛인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 모두는 너희의 이 땅의 과정에서 갈림길에 도착한다. 그러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사람들을 위해 너희가 나를 떠나 타락한 원죄를 사해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길을 택해야만 한다.

내 아주 큰 사랑이 너희 모두에게 그에 관한 지식을 전해주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수와 그의 사명을 설명해주려고 시도하면서 나는 너희 모두에게 빛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신 안에서 먼저 이 빛이 양분을 받아 밝은 화염으로 타올라야만 한다. 너희 자신이 자유의지로 그에게 행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귀환은 보장 된다. 나 자신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영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모든 지식이 부족하다. 내 대적자가 너희를 빛으로부터 물러나게 하면, 대적자가 사랑은 영원으로부터 빛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면, 영의 어두움이 임한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단지 사랑을 행하게 너희에게 자극할 것이다. 나는 자극하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직접 말할 수 없는 동안에는 양심의 음성을 통해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안에 내 영의 불씨가 먼저 아주 나지막하게 자신을 나타내 너희에게 작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의지가 결정한다.

너희의 의지가 나를 위한 결정을 하면, 내 빛이 그 안을 더욱 밝게 밝혀줄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깨닫는다. 그는 더 이상 어두움으로 떨어지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내 빛이 그를 높은 곳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는 빛 가운데 길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목표에 도달한다. 그는 나와 영원히 하나가 된다.

아멘

메시아가 이 땅으로 임했다.

B.D. No. 8065

1961년 12월 19일

내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세상이 얼마나 어두웠는가! 단지 희귀하게 빛이 있었고 그들 안에 사랑의 빛이 켜진 사람들은 단지 소수였다. 그들은 큰 위험을 깨닫고 죄와 죽음에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구했다. 그들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고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다. 왜냐면 그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으로 임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소수의 사람들의 기도를 성취시켜 주었고 내가 직접 이 땅으로 임했다. 왜냐면 예언들이 성취돼야만 하고, 위험이 아주 커서 한 구세주가 세상을 구원하러 와야만 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빛을 발산했고 내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비취주었다. 내 사랑의 흐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사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들은 나를 세상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깨달았다.

어둠이 있는 곳은 내 대적자가 지배하는 곳이고 내 대적자는 진실로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인류에게 분노한다. 그러나 나는 밝게 빛나는 빛으로 이 땅으로 임했고 내 대적자의 역사를 드러냈다. 이로써 그를 사탄으로 드러냈고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려는 자로 드러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 안에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내 신적인 사랑의 가르침을 선포할 때 자원하여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다. 이런 내 신적인 사랑의 가르침을 성취시키는 일이 유일하게 인류에게 그들이 영적인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을 의미한다.

빛 자신이 이 땅으로 임했고 사랑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모시기 위한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한 인간 안에 육신을 입었다. 내가 육체를 입었다. 왜냐면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인 나 자신이 사람들 가운데 머물기 위해 겉형체를 선택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헤아릴 수 없게 충만한 내 빛과 힘이 너희에게 비추면, 너희가 소멸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 빛의 혼이 자신을 제공했다. 그는 나에게 의해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 천사의 영이었고 그는 인간의 겉형체 안에 살면서 이제 내 사랑의 힘을 부여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인간의 겉형체 안에서 너희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었고 어두움이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가 빛을 통해 어두움을 물리치기 원할 때 너희가 갈망했던 내 사랑의 빛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나 자신으로부터 너희에게 발산된 사랑의 빛이 어두운 밤을 밝혀주었다. 나는 너희 사람 가운데 인간 예수로 살았다.

내가 가장 큰 영적인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땅으로 임했고 나는 너희가 한때 자진해서 깊은 곳까지 따라갔고 너희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자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자로서 이 땅으로 임했다. 나는 인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한 구속 역사를 완성했고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를 해결했다. 이 죄가 너희를 나에게서 멀어지게 했고 내가 너희를 다시 내 나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면, 먼저 너희 죄에 대한 공의한 속죄를 행해야만 했다.

어두움 속으로 빛이 임했다. 그 안에서 영원한 빛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빛의 존재가 이 땅으로 임해야만 했고 인간의 겉형체가 빛의 혼을 받아들여야만 했고 빛의 혼이 자신의 몸을 준비해서 나 자신이 이런 인간의 겉형체 안에 거할 때 소멸되지 않게 했다. 나 자신은 무한으로 발산되는 사랑의 힘이었다. 그러나 사랑의 힘이 모든 빛을 버렸던 너희 가운데 거하는 동안에는 겉형체가 필요했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나를 깨달았다. 왜냐면 그들 안에 아직 사랑의 불씨가 이글거리고 있었고 나를 향해 달려왔고 그들이 어두움을 벗어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에 구속 역사가 완성돼야만 했고 원죄를 갚아야만 했고 아직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고 그가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는 혼들을 위해 구매 대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인간 예수는 어려운 이 땅의 과정을 갔고 그는 자신을 준비해 나를 위한 거처가 되었고 나를 자신 안으로 영접했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삶은 단지 사랑을 행하는 삶이었다. 왜냐면 사랑이 그를 나와 긴밀하게 연결시켜주었고 사랑이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아주 큰 사랑이 자신의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게 했고 타락한 형제들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렸다. 그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고난을 받고 죽었고 이를 자신의 큰 사랑으로 감당했다. 그는 나 자신을 받아들였고 자신을 나와 전적으로 하나가 되게 했고 그 자신이 내 원래의 요소인 사랑이 되게 했다. 이로써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구속 역사를 완성했다.

(1961년 12월 19일) 나는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고 너희를 위해 너희가 가졌던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 그러나 나는 회복시켜주는 일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을 인정하고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믿는 너희의 의지에 달려 있게 한다. 나는 밝은 빛으로서 이 땅으로 임했고 인류는 이제 이런 빛 가운데 아버지의 집의 나에게 다시 돌아가기 위해 가야만 할 길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길을 잃었고 내 대적자의 영역에 거했고 내 나라로 인도하는 길을 알지 못했다.

나 자신이 먼저 너희 모두가 이제 나를 따를 수 있는 길을 너희에게 준비해줘야만 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임했고 육신을 입었고 너희를 위해 인간 예수 안에서 가장 어려운 제사를 드렸다.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을 밝혔다. 왜냐면 구속 역사가 모든 시대를 위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십자가로 가는 길은 항상 그리고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내 나라의 나에게 돌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너희 사람들은 항상 또 다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분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인간 예수의 큰 사랑이 너희에게 항상 제자의 길로 제시될 것이고 너희는 진실로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그의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키고 너희가 사랑을 통해 나 자신과 연결을 이루면, 너희가 너희 안에서 빛을 밝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어두움을 이기게 될 것이고 너희 원수인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고 너희를 한때 생성되게 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

영원한 빛이 이 땅에 임했다.

B.D. No. 8068

1961년 12월 25일

내가 이 땅에 임하였을 때 어두운 밤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꼭 필요한 빛을 주었다. 이 빛은 너희에게 나를 향한 길을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밝혀주는 빛이다. 나는 빛의 혼으로서 밝게 비추이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임해 아기 예수로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이 땅의 인생길을 시작하고 십자가에서 생을 마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빛의 혼이 내 대적자의 어두운 영역으로 임했다. 이 빛의 혼 안에서 나 자신이 육신을 입은 것이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랑인 나를 자신이 덧입었다.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한 그가 나를 스스로 그의 심장에 영접했기 때문이다. 아기 예수 안에 빛의 혼이 그의 빛을 벗고 임재했다.

왜냐면 그가 인간 예수로서 사람들 가운데 거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는 전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에 머물지 않고 이 사랑을 증가시켰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힘으로 채워져서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지혜로 가르쳤다.

그는 사람이었다. 인간 예수의 사명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길을 보여주며 그들을 앞서서 이 길을 먼저 감으로서 사랑 자체인 나에게 다시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사랑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법칙처럼 이루어진다. 인간의 육체는 혼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가 된다. 그의 혼은 빛의 혼이다.

그렇지라도 그는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과 같은 시험을 당했다. 예수의 혼이 사랑으로 충만해 이 사랑이 그에게 이런 유혹을 이길 능력을 주었다. 사랑이 빛을 주었다. (1961년 12월 25일)

다시 말해 인간 예수는 이 땅의 삶을 시작할 당시 다른 모든 사람처럼 지식이 없었다. 그러나 그 안의 사랑이 순식간에 그의 영에 빛을 비추었고 그 안에 사랑이 밝은 빛을 발산했다. 그

라서 예수는 인류의 큰 위험을 깨닫고 이 큰 위험이 인간들의 원죄에 근원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계속하여 인간 예수의 지혜와 능력은 증가했다.

왜냐면 사람이 그를 계속하여 채워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나와 아주 깊은 연합이 되어 있어 내 사랑의 빛이 그를 전적으로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빛을 다시 반사했다. 그는 사람들을 지혜로 가르쳤다. 그는 그의 큰 사랑에서 나오는 권세 있는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했다.

인간 예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신을 영화 시켰다. 그의 사랑이 육체로 하여금 혼의 소원에 자원해 복종하게 하게해 육체와 혼이 위험 가운데 있는 자를 돕고자 하는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구원하는 사역을 하려는 같은 추구하게 함으로 이 영화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병든 자를 고쳤다.

왜냐면 그는 사랑의 힘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서 먼저 이들에게 세상적으로도 이 사랑의 힘을 느낄 수 있게 만들고 자신을 위해 얻어서 자신의 신적인 사랑의 가르침을 영접하고 사랑의 길을 가는 자기를 따르는 노력을 하게 하기 위한 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었다. 내 대적자는 사람들은 놓아주지 않기 위해 사람들의 의지를 모든 방법으로 약하게 했다. 인간 예수는 이 대적자의 권세를 파괴하려 했다.

그는 대적자를 내 능력으로 이기려고 했다. 그 안에 있는 사랑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사랑으로 내 사랑을 항상 더 많이 나타나게 해주기를 강요했다. 그는 영원한 사랑인 나를 자신 안에 모셨다. 그래서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이었다. 이런 가장 깊은 나와의 연합으로 인간 예수는 구원사역을 완성했다. 즉 그는 인간으로서 가장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견디어 냈다.

그 안에 사랑인 나 자신이 그에서 구원사역을 이룰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인간으로서 내 대적자에게 대항하며 싸웠고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대적자에게 죽음에게 승리했다. 이전에는 대적자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인간에게는 불가능 한 것이었는데 구속사역 이후에는 가능하게 되었다.

이 땅에 임한 구세주는 큰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단지 사랑으로만 이루어 진다. 이 사랑이 나 자신이었다. 사랑이 한 인간의 형체를 선택한 것은 인간들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다. 왜냐면 사람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신적인 충분함이 임한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가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형체를 사용해야만 했다. 한 빛의 혼이 나에게 형체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설명될 수 있다.

왜냐면 내가 깨끗하지 못한 혼에 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간의 형체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내가 보여준 길을 먼저 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성정이 그러한 것처럼 이 인간도 인간으로서 같은 성정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돕는 자로 옆에 둘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당시에 인간 예수는 단지 그를 충분하게 채우고 있는 사랑의 힘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랑이 인간들에게 좌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의미하는 사역을 완성했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 인간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그러나 단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킨 후에야 비로소 이 깊은 모든 비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안에 빛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도 원초에 그랬던 것처럼 신적인 빛으로 채워지게 되고 너희는 복되게 될 것이다.

아멘

가장 깊은 지식이 예수님께 계시되었다. 예수님을 따르라.

B.D. No. 5646

1953년 4월 8일

창조의 역사와 타락과 영적인 존재들이 떠난 일은 너희 사람들에게 항상 단지 비유를 통해 알려줄 수 있다. 이로써 너희가 인간의 아들 예수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히게 한 동기를 부여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를 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해야만 하는 지를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의 성숙한 정도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정한다. 사람이 단지 희귀하게 가장 깊은 지혜 안으로 들어가 인간 예수처럼 내 통치와 사역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인간 예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한때 창조된 존재들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내 영원한 구원 계획을 볼 수 있게 된다.

인간으로 갖게 된 예수의 가장 깊은 깨달음은 단지 그의 사랑을 행하는 삶의 결과이고, 사랑이 인간 예수 자신을 하나님처럼 되게 했다. 즉 인간 예수는 동시에 내가 나에게 의해 창조된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 준 이 땅의 목표에 도달했다. 이런 목표의 성취인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일이 피할 수 없게 아주 밝은 영의 상태에 도달하게 해야만 했고, 이로써 예수가 모든 것을 그러나 동시에 절대로 목표에 도달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끝없는 나와의 간격을 깨닫고 통찰하고 꿰뚫어 볼 수 있게 했다.

이런 지식이 그가 무엇보다 사랑했던 나에게 내 피조물을 사랑을 통해 내 원래의 성품과 같아진 존재로서 돌려주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게 만들었다. 나와 그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신적인 존재였고, 신적인 존재가 이제 그가 모든 것을 알게 했고, 나를 떠나 타락한 존재들에게 도움을 주는 유일한 길을 알게 했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자신의 지식을 절대로 이웃에게 전할 수 없었고, 그는 실제 이웃에게 깨달음에 도달하는 길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자신의 이웃에게 절대로 전해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영적인 창조와 영적인 존재의 타락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이 학교 교육방식을 통해 얻을 수 없고, 내 자신이 사람들이 그에 대해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해줄 수 없고, 이런 깊은 지식은 유일하게 단지 사랑을 통해 소유하기 원하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너희의 나와 대한 개념을 가릴 수 있거나 훼손할 수 있는 잘못되고, 절대로 나를 향한 사랑을 깊게 만들지 못할 가르침에 희생되지 않을 수 있게 되면, 너희 사람들은 내 영에 의해 올바른 생각으로 인도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한 순간에 너희의 영을 밝게 해줄 수 있고, 이전에 너희에게 불분명했던 모든 것이 너희의 영적인 눈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세상의 어떤 지식도 너희의 이런 지식을 물리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너희 안에 잘못된 생각이 숨어있을 수 없게 되고, 너희는 오류인 것을 오류로 깨닫고,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안다. 왜냐면 깨달음이 빛이고, 이 빛이 원래의 빛으로부터 너희 안으로 비추고, 이런 빛은 외부에

서 이성에게 전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 원래 초기부터 가지고 있는 빛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희귀하게 인간 예수에게 계시된 모든 것을 계시받는 성숙한 정도에 도달한다. 그러나 예수를 올바르게 따르는 일이 그가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 또한 창조의 역사와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 역사와 통치와 영원한 내 구원 계획을 알게 되고, 깨닫는 일이 그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나는 다시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내 아주 큰 사랑이 역사하게 한다. 그러므로 나는 또한 내 피조물들이 내 자녀로서 스스로 나에게 사랑을 바칠 때까지, 그들이 사랑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 때까지 그들의 사랑을 얻는 일에 피곤해지지 않는다.

아멘

예수의 약속은 성취돼야만 한다.

B.D. No. 8355

1962년 12월 15일

너희는 내 영에 의해 진리 안에서 인도 받아야 한다. 내가 이 땅에서 거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었다. 왜냐면 내가 너희가 축복 되기 위해서는 항상 진리 안에서 서야만 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순수한 진리가 사람들 가운데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했고 온전하지 못하고 온전하고 순수한 것이 절대로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생각해본다면, 너희는 절대로 순수한 진리를 변개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나 자신이 이런 진리를 변개시키는 일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의 신적인 근원이라는 증거로서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나에 의해 내 말씀으로 원래 주어진 영적인 내용에 변화를 주려고 하면, 나는 이런 자유의지에 제한을 가할 수 없고 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계시를 해주는 이유가 있다.

이로써 너희가 진리 안에 머물기를 진지하게 원하면,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다. 내가 영원한 진리로서 항상 단지 내 피조물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일을 생각 할 것이라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그들이 나에게 향하는 길은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어두운 영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내가 절대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절을 제시해 보라. 내가 조상들의 책을 통해 이미 말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러므로 아버지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침묵할 것이라는 구절을 나에게 제시해 보라. 너희는 이런 증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내 아버지의 사랑이 이 땅의 내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 지를 알고 있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항상 그들에게 제공 해주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순수한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왜냐면 너희의 영이 아직 깨어나지 못한 동안에는 내 말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류가 밝은 빛 가운데 거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나 반대가 되게 한 수많은 오류가 순수한 진리를 대신해 관철될 수 없었을 것이다. 비록 너희가 모든 문자를 외운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이 깨어나지 못한 동안에는 죽은 것으로 남는다.

그러나 영이 깨어난 사람은 내 음성을 듣고 이를 아버지의 음성으로 깨닫는다. 왜냐면 영이 영에게 말하고 혼은 이를 행복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왜 내가 이 점을 강조하느냐? 왜냐면 너희 모두가 너희가 실제 내 양인지 질문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증거하는 성경에 있는 내 말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나 자신이 인간 예수로써 말했던 모든 것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아주 분명하게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계시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직접 말하는 모든 것이 책 중에 책의 내용과 배치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 스스로 이런 규정을 만들었고 끈질기게 이를 고수하고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책 중의 책이 종료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영이 깨어나지 못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가치가 없다.

나 자신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들 안의 영을 깨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리면, 내가 그들의 영이 깨우침을 얻게 내 직접 해주는 말로 그들을 도와주기 원하면,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내 기록 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면, 너희는 이런 내가 주는 사랑의 증거를 부인하거나 대적자의 역사로 만들 수 없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는 단지 너희 자신이 아직 깨어나지 못한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내 말을 읽고서 이에 관해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준 모든 약속을 성취돼야만 함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했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 된 대로 그의 몸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내가 말했다. “너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더 많은 너희 안의 내 영의 역사에 대한 증거들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내 말이 성취될지 어떻게 성취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느냐? 너희는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면 생각해보았다면 너희는 진실로 내가 직접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나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여기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을 믿어야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것을 감사하며 받아야만 했을 것이다.

만약에 사람들이 깨어난 영으로 책 중의 책을 읽었다면,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너희 주변의 큰 영적인 위험을 보라. 그러나 사람들이 영을 통해 깨우침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선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을 축복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이 책이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들은 대부분 형식적인 신자들이고 그들의 심장의 상태와는 다르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걸치레 기독교에 만족할 수 없다. 왜냐면 자기 유익을 구

하지 않는 이웃 사랑이 없는 곳에 빛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곳에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종말의 때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아주 큰 사랑으로 위로 부터 사람들에게 전해준 모든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단지 순수한 진리만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길을 밝혀 주는 빛을 줄 수 있고 나에게 인도할 수 있다.

아멘

삶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B.D. No. 5988

1954년 6월 29일

나는 죽음을 피해 세상에 죽음을 가져 오신 분에게서 돌아 서고, 내가 깨어 나면 영원히 살겠다는 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원한다. 나 혼자서 약속을 이행할 수 있고, 나 혼자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죽음을 계명할 수 있고, 나 혼자서 너희가 삶에 필요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나에게 와서 내 손에서 생명을 얻는다. 진실로 살고 원하는 사람은 나에게 힘을 원하고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한다. 왜냐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죽음에서 쫓아 내고 원하기 때문에 너희의 혼의 생명이 없는 상태를 바꾸고 너희 자신의 행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 나는 그녀가 이미 이 땅에서 언젠가는 영의 나라에서 빛과 능력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의지에 반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죽음을 피하고 싶을 때 내 힘을 먹을 수 있다. 너희가 모든 생명의 원수로부터 돌아서야 그는 너희를 향한 그의 힘을 잃고 너희는 영원한 생명에 접근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 너희에게 힘이 흐르고, 너희에게 생명을 보장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내 사랑의 힘의 흐름에 너희 자신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 심장은 이제 생명수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원한 죽음을 피했다.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도 혼의 적을 풀어줄 수 없다. 왜냐면 의지가 약해지고 그것에 의해 재갈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그일은 너희를 땅에 유지하고 혼자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접근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절대로 깨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너희를 포로로 잡은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원수가 너희에게 제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이일은 너희가 너희를 도울 수 있고 너희를 그에게서 해방시킬 수 있다. 너희가 그것을 원한다면, 너희가 그것을 원한다면, 그의 손이 너희를 만지고 그의 사랑의 혜택을 느끼게 한다. 그는 너희가 그를 존중하고 그가 너희를 구속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너희의 길을 걸어간다. 십자가에서 의 죽음을 통해 대적자의 영역에 침투할 권리를 획득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공허로운 사랑은 또한 깊은 곳의 혼에게도 온다. 이 땅에 있든 너머의 나라에 있든.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구세주이 가까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죽음의 밤에서 생명의 빛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분에게가는 길을 택하라. 그는 죽음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서 육신을 취한 생명 그 자체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희를 만난다. 너희가 도움을 주자마자 너희가 십자가에 눈을 돌리고 일

어나고 저항하고 너희는 내 도움으로 포로에서 자유로워진다. 내가 너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속했다.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고, 빛은 진리이다.

B.D. No. 5592

1953년 2월 1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있는 곳에 단지 빛을 비출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없는 곳에는 어둠이 있다. 이 말을 심장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 사람은 곧 빛의 광선을 받게 될 것이고, 그는 빛에 도달하기 위해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빛은 진리이고, 진리는 나에게서 나온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안에 빛을 밝혀주도록 자신 안으로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할 수 없다. 그러나 나를 영접하는 일은 사랑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일을 의미한다.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내가 그 안에서 산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다. 나 없이는 어둠 속에 빠져 살고, 너희가 다른 곳에서 빛을 찾을지라도, 너희가 스스로 사랑을 통해 불을 밝히지 않고, 너희가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자체가 사랑인 나를 너희에게 이끌지 않으면, 너희는 사랑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너희의 생각이 무질서 하게 될 수 있고, 너희 심장의 내면도 무질서하게 될 수 있고 그러면 너희 안에 사랑이 거할 수 없게 된다. 사랑은 영원한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을 정리하고, 또한 너희의 생각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너희 안에 어떤 선명하지 못함과 질문이나 의심이 생기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내가 심장 안으로 영접을 받을 때 너희 안이 빛이 있게 된다. 왜냐면 나 자신이 영원의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빛이나 어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너희가 빛이 세상에 임하게 한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으면, 너희는 나를 얻려고 시도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통해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불러내게 할 것이고, 너희는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내 사랑의 계명을 내 뜻으로 깨닫게 될 것이고,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내 뜻을 따르게 될 것이고, 나와 내 사랑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삶을 갈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내가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발산하는 빛 안으로 스스로 들어갈 것이고, 빛을 구할 것이고,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사랑 안에서 살게 되면, 너희는 진리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사랑을 통하는 길 외에는 진리에 도달하는 다른 길이 없다. 이런 사실이 또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랑이 없는 곳에 틀림 없이 있어야만 하는 오류를 너희에게 설명해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사랑은 식었고, 나 자신이 거할 수 없는 곳인 내 밖에서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의 사랑 없음 자체로 인해 물리침을 받은 진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사람의 이성이 아무리 고도로 발달되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영원한 사랑이다. 그러나 빛이 꺼진 곳에 사랑이 없고, 영의 어둠이 있고, 오류와 무지와 속는 일과 영적인 오만함이 있다. 왜냐면 그런 곳을 어둠의

권세자가 다스리기 때문이다. 어두움의 권세자는 빛을 물리치기를 원하고 이로써 또한 영원한 진리이고 영원한 빛인 분을 물리치기 원한다.

아멘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진리가 나온다

B.D. No. 8700

1963년 12월 15일

진리를 갈망하라. 진실로 이런 영적인 구함은 너희에게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이 진리를 순전히 이성의 생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을 영접한 인간의 이성을 기초한 책들 안에서 구하지 말라. 왜냐면 인간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진리를 탐구해 해명할 수 있다고 믿으면, 너희는 자신을 속인다.

왜냐면 단지 나 스스로 영원한 진리 자체인 내 안에 순수한 진리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자신 안에서 진리를 구하라고 말한다. 나에게서 진지하게 진리를 구하라. 너희는 진리를 받을 것이다. 내가 나 자신에게서 너희가 구하라는 진리가 의미하는 것은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다. 이는 영적인 영역에 관한 절대로 증거로 증명할 수 없는 지식이다. 너희의 존재와 너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지식이다.

이는 모든 것을 창조한 권세에 관한 그리고 이 권세와 너희 사람들과의 연관 관계에 관한 지식이다. 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한 권세의 성품과 역사와 사역에 관한 지식이다. 자신의 이성을 통해 이에 관해 진리에 합당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에 관한 설명하는 일을 단지 영원한 진리가 행한다.

너희는 설명을 구하기 위해 순수한 진리에게 문의해야만 한다. 너희에게 답변을 해줄 수 있고 해주기 원하는 자는 나 자신이다. 왜냐면 나는 최고의 권세이고 내 형상을 가진 피조물인 너희를 이런 지식으로 행복하게 만들려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단지 진지하게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만 나 자신을 계시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의 진리를 전해주기를 나에게 구하는 일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진지한 갈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지 적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지나치거나 또는 그들에게 사람들이 전하는 단지 그들의 이성이 일한 것으로 올바르게 인도함을 받은 이성의 생각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영접한다.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은 적다.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에게 답을 구할 정도로 강하지 못하다. 그러나 단지 나로부터만 순수한 진리가 나올 수 있다. 사람들이 오류 가운데 있으며 어떠한 진리 된 지식이 없이 사는 데에는 너희 사람들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에 관한 잘못된 관점에 원인이 있다. 이로써 너희는 너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땅의 삶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진리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인간의 혼의 아주 성숙하지 못한 것을 나타내 주는 현상이다. 왜냐면 이 혼은 아직 인간에게 빛이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거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대적자 자신도 혼들을 잃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적자가 혼들을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어두운 영으로 있는 동안에는 단지 자신의 권세 아래 묶어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 만이 사람들을 온전함에 이르게 한다. 진리만이 축복이다. 진리는 이 땅에 널리 퍼져 있는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춰주는 빛이다. 나 자신이 진리이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선자는 나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너희 사람들이 이제 진리에 합당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으면 너희에게 이 땅의 삶의 길에 관한 빛이 없다.

너희는 비록 삶을 영위하지만 진리가 없는 이 길은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이런 길은 단지 낮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 반면에 너희가 진리의 길에 들어선다면 최종적으로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다. 왜냐면 이 길은 밝게 빛나고 너희를 목표인 영원한 진리 자체인 나에게 인도한다.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너희에게 약속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항상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준비가 되어있다.

단지 심장으로 나로부터 들으려고 하고 나에게 의해 진리로 인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내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나 자신을 계시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함이다. 왜냐면 이런 구함은 너희의 귀환하려는 진지한 의도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가 나 자신을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구함은 확실하게 응답을 받게 되는 영적인 구함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너희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할 수 있으면, 너희는 내 속성 안의 나를 깨닫고 사랑한다. 나는 너희의 사랑을 요구한다. 나는 너희의 사랑을 갈망한다. 너희가 순수한 진리를 전달받음으로 너희의 출발점과 너희가 한때 가졌던 나에게 대한 위치와 다시 나와 하나가 되어 하는 목표에 관한 모든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너희의 이 사랑이 깊고도 순수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너의 안에 사랑이 불타오를 것이다. 너희는 항상 긴밀하게 나에게 다가올 것이고 너희를 넘치게 축복되게 만드는 지식으로 더 깊이 인도될 수 있다.

너희는 내 영원한 구원계획을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모든 개개인의 사람들이 나를 섬길 수 있는 큰 귀환역사에 관한 것을 알 것이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 사랑이 너희를 축복되게 할 것이다. 왜냐면 이 사랑이 최종적으로 나와 하나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진리가목표로 인도한다. 너의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드러 나에게 긴밀하게 헌신해야 하고 나 자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모든 것에 관해 설명해줄 수 있고 해주려고 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랑의 정도는 진리에 대한 기준이다.

B.D. No. 8669

1963년 11월 10일

사 람들이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내 뜻이다. 왜냐면 사랑은 신적인 존재의 근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 사람들은 다시 내가 원래 창조했던 것처럼 신적인 존재가 되어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뜻을 성취시키면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순종하는 자녀이고 자원해 그의 뜻에 복종하고 나 자신의 뜻과 다른 뜻은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된다. 왜냐면 그들은 내 뜻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은 사랑이다. 왜냐면 그러면 모든 영적인 눈먼 것 들이 너희에게서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항상 너희가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너희의 혼이 성숙하게 돕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더 이상 오류에 빠질 수 없음을 믿을 수 있다. 왜냐면 너희에게 충만한 사랑이 너희에게 나에 의해 주어진 것에 대한 내 대적자에 의해 주어진 것에 대한 선명한 깨달음을 주기 때문이다. 나 자신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 영을 사랑이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고 이 영이 항상 너희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너희 인간들이 사랑의 삶을 살면, 너희는 더 이상 오류 가운데 거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아직 잘못 된 생각 가운데 있으면, 너희에게는 사랑이 부족한 것이다. 너희가 언제든지 순수한 진리를 소유하기를 원하면, 이 말을 너희는 가슴 깊이 담아두어야 한다. 너희의 사랑의 정도가 낮을 경우에는 너희는 진리를 진리로 깨닫지 못한다. 왜냐면 사랑이 없는 것은 흑암을 의미하고 깨달음의 부족을 의미하고 단지 사랑의 삶으로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으로만 절대로 신적인 것이 아닌 내 대적자의 일부분인 자기 사랑을 극복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봉사상태를 의미한다.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사랑의 계명이 설교될 것이고 항상 또 다시 사랑의 삶의 나타나는 결과와 사랑이 없는 사람의 결과를 제시해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가슴에 담아두지 않으면, 사랑의 삶을 통해 그의 생각이 올바르고 진실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나에게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주님을 위한 사역”에 비록 너희가 열심히 것처럼 믿을지라도 너희는 오류 가운데 거할 것이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전해주려고 하는 것을 이웃들은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전해주려는 것이 진리에 합당한 것이라면 절대적으로 사랑의 삶을 전제로 하는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이라면 그러할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살아야만 한다. 올바른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이런 사랑은 단지 말로만 보증이 될 수 없다. 왜냐면 사랑은 하내 능력이고 이런 모든 능력은 역사하기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와 영적인 연결은 항상 단지 사랑의 삶을 통해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내 사랑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고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목표인 자신의 성품의 변화를 완성시킨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삶을 헛되이 살지 않게 된다. 그는 이 삶을 완성에 이르게 한다. 왜냐면 존재들은 한때 사랑을 자유의지로 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의 마지막 완성을 이루게 도와주는 비추임을 나로부터 받기 위해 자유의지로 다시 사랑을 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원래의 상태였던 것처럼 나와 다시 하나가 된다. 너희 사람들이 사랑의 삶의 큰 중요성을 제시하기를 원하면, 그러면 너희는 만약에 너희가 단지 사랑의 기준만을 적용하면, 이웃들이 얼마나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러나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려고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에게 진리가 제공되는지 오류가 제공되는지 그것을 너희가 영접해도 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없이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

나 사랑은 올바른 생각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단지 사랑 안에 서있는 사람만이 가르칠 자격이 있다. 왜냐면 사랑 자체인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오류를 영접하거나 또는 전하지 않는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이런 일을 막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다음과 같이 약속한 것처럼 그는 사랑의 삶을 통해 나와 연합이 된 것처럼 이미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 진리가 있어야만 하게 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사랑과 지혜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사랑 안에서 살면, 너희는 이를 그의 행하는 일을 통해 깨닫게 된다. 즉 모든 자신을 부인하고 단지 이웃의 행복하게 하기 위해 또는 도움을 주기 위해 행하는 것인지 또는 항상 단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또는 부유하게 되기 위해 하는 지를 알게 됨으로 깨닫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이런 사람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에 조심을 해야만 한다. 왜냐면 나로부터 직접 주어진 진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단지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웃 사랑. 예수님을 따르는 일. 진리.

B.D. No. 7857

1961년 3월 24일

오, 너희 모두는 내 삶의 방식을 모범으로 삼고 나를 따르라. 사랑의 삶을 살고 인내를 행하며 이웃들에 대해 온유하게 대하라. 온유하고 긍휼을 베풀고 너희가 이웃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라.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그로 하여금 너희를 보범으로 삼고 내 뜻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이다.

단지 사랑이 너희가 축복을 받게 되게 도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성품을 바꿔야만 한다. 너희는 자기 사랑을 극복해야만 한다. 너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증가시켜야만 한다. 너희의 모든 원하는 일과 생각하는 일이 사랑의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 너희는 이웃의 악의에 찬 말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웃을 재판관에게 송사를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인내하며 그의 연약함을 감당해야만 하고 사랑이 충만하게 그가 올바른 길을 가게 그가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도와야만 한다. 모든 의지와 행동에 내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진실로 사랑이 충만했던, 항상 도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던,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항상 너희가 시도하는 일을 정해야만 한다. 너희는 항상 내가 너희를 대신에 행하면, 어떻게 행했을 것인가 생각해야만 한다. 너희 심장이 너희가 항상 단지 사랑을 행하게 고귀하지 못한 생각이 더 이상 너희 심장에 거하지 못하게 항상 답변해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진리 안에 거해야 하고 이웃들이 오류 가운데 머물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들을 도와 그들이 자신의 오류를 깨닫게 해야 한다. 왜냐면 오류는 어떤 축복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오류로 깨닫는 것을 너희의 이웃에게 사랑으로 알려주고 그가 이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 나 자신에게 올바른 생각과 설명을 구하게 맡겨야 한다.

나 자신이 너희에게 만약에 너희가 진지하게 진리를 갈망하면, 내가 너희를 오류 가운데 놔두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나는 항상 내 약속을 성취시킬 것이고 너희 안의 아직 어두운 곳에

빛을 선물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심장으로부터 나에게 질문하면, 심장에서 답변을 기대하라.

나 자신이 너희에게 말하게 하라. 너희는 너희 안에서 선명한 답변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 안에서 내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 너희가 이제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에 있는지 스스로 증명하게 하기 위해 너희가 스스로 나와 긴밀한 연결을 이루고 너희가 스스로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 내 뜻이다.

이를 위해 너희 혼자서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생각에 너희가 빠지게 하면서 내가 항상 너희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다가와 나에게 구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올바르게 가르쳐 너희가 너희 안에서 선명함을 느끼게 하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내 뜻을 따라 행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심장 안에 이런 의지를 답변으로 넣어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속하기 원하는 너희 모두는 스스로 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고 그를 오류와 잘못 된 행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원하면, 그에게 영향을 주려고 시도해야 한다. 너희는 항상 단지 아버지를 필요로 하다. 내가 사랑으로 이 땅에서 역사한 것처럼 항상 단지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너희의 이 땅의 길은 항상 단지 사랑에 의해 정함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진실로 나를 올바르게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웃에게 축복이 되게 역사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진실로 구속하는 일을 행한다.

아멘

진리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 사랑.

B.D. No. 6486

1956년 2월 27일

나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진리이다. 왜냐하면 내 대적자는 절대로 나와 내 이름을 위한 증거를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와 내 나라를 위해 말하는 곳에서 내 이름이 높임을 받고 사람들을 나에게 인도하기 위해 내 구원 사역이 언급되는 곳과 선명하게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절대로 내 대적자의 역사가 있을 수 없고 그가 절대로 역사할 수 없다. 이를 위한 선행 조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력 있게 전하는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단지 빈 소리만 말하는 역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너희는 언제든지 어떻게 언제 내 안에서 나온 진리가 전파되는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구속사역이 항상 나 자신이 사람들 가운데 전파되길 원하는 가르침이 신적인 근원을 가진 증거로써 강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이 진지하게 진리를 영접하기 원하면, 너희에게 시험해보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시험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대적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일을 막기 위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모범을 보인 사랑이 단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항상 강조해야만 한다. 이 땅의 내 올바른 대리자로서 내 이름으로 말하고 너희에게 나로부터 온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사랑을 설교해야만 하고 사랑을 실천해

야만 한다. 너희는 이제 올바른 내 이름의 대리하는 자의 확실한 특성을 알게 되었다: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행하는 일이다. 이것이 부족한 것은 진리가 아니다. 왜냐면 나 자신이 사랑이 없는 곳에는 머물 수 없지만 그러나 나 자신이 항상 단지 진리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라는 주장을 하는 지식이 너희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너희는 나 자신이 역사하는지 내 대적자가 역사하는지에 관해 서로 싸울 필요 없다. 왜냐면 너희가 그런 특성을 항상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런 특성이 없이 너희에게 제공된 것을 올바르게 거절할 수 있다. 너희는 단지 너희가 빈 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면 된다. 왜냐면 내 대적자는 빈 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로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은 그런 빈 말을 거짓으로 깨닫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에 합당한 영적인 내용을 받고 이를 진리로 깨닫는 일은 너희 자신에게 달려있다.

너희는 오류 가운데 머물 필요가 없다. 너희가 이런 오류를 발견하는 일이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의지 자체가 너희의 판단력을 정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을 중심에 두지 않는 모든 영적인 내용을 주저 없이 거절할 수 있다. 왜냐면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고 예수의 나에 대한 이웃에 대한 크나 큰 사랑으로 인해 내가 예수와 영원히 더 이상 분리될 수 없이 하나가 된 것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를 인정하려면 그는 그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한다. 한 가르침에서 이를 선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이런 가르침은 순수한 진리라고 인정할 수 없고 그런 가르침 안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이 강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웃사랑이 인간 예수의 유일한 의지였고 이로써 내 의지이다. 그러므로 이런 이웃사랑이 예수가 이 땅에서 선포했고 항상 선포되어야만 하는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러나 내 대적자가 진리를 물리치고 자신의 지식으로 대치하려는 곳에는 이런 가르침이 절대로 전해질 수 없다. 이런 특징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는 밝고 선명하게 모든 잘못 된 가르침을 깨달을 것이다. 비록 가르침이 생명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실제 행하는 사랑이 없이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었을 지라도 너희는 선명하고 확실하게 모든 잘못 된 가르침을 깨달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증거하는 모든 가르침은 주저하지 말고 영접하라.

아멘

진리의 빛이 길을 비추어 줘야 한다.

B.D. No. 7945

1961년 7월 19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처럼 나는 너희를 진리 안에서 인도하기를 원한다. 왜냐면 진리만이 너희에게 나에게 인도하는 너희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올바른 길을 비추어 주는 이 땅에서 너희에게 필요한 유일한 빛이기 때문이다. 진리가 없이는 너희는 내 대적자가 너희 가운데 전파한 깊은 어둠 가운데 살게 된다.

왜냐면 내 대적자는 너희가 나에게 향하는 길을 찾는 일을 막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너희 안에서 나를 향한 갈망이 생기는 일을 막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나 자신과 내 성품을 왜곡시킨다. 그는 나를 너희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잘못되게 묘사한다.

그는 너희에게 내 사랑 잘못 된 인상을 준다. 그는 너희가 나를 깨닫고 나를 사랑하기를 배우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 그는 내 성품을 온전하지 못한 존재로 복수하고 분노하는 하나님으로 지독하고 엄격한 심판자로 어떠한 사랑도 없는 존재로 묘사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단지 영원한 심판을 가르쳐서 사람들 안에 나를 향한 모든 사랑을 없애는 두려움과 공포를 깨어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사랑이 너희를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 나를 향한 사랑이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추구하게 만들고 즉 항상 단지 사랑 안에서 삶을 살라는 내 의지를 성취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내 영원한 질서의 근본 원칙은 사랑이다. 너희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는 그러므로 너희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올바른 개념을 얻기 위해 너희는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단지 진리만이 너희에게 나와 내 성품에 관한 선명한 개념을 준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진리 안에서 인도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 안이 빛이 되고 너희가 나를 올바르게 깨닫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뿐만 아니라 그도 너희의 혼을 얻기 위해 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너희를 영의 어두움 가운데 묶어 두기를 원한다.

왜냐면 빛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고 그러면 그는 혼을 잃게 되고 혼들은 진리의 빛 가운데 나를 깨닫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 자유의지로 나를 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나는 실제로 인류가 그들이 나에게 의해 진리 안에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동안에 거하고 있는 빛이 없는 상태를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나 자신이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영인 위로자를 보내 줄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다. 그러나 항상 너희 스스로 너희의 준비된 자세를 천명해야만 한다. 너희에게 비추어 지는 나에게 인도하는 길을 너희에게 밝혀 주는 빛을 갈망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진실도 더 이상 어두움을 어두움의 권세자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그 자신이 나로부터 나오는 빛을 피해 도망치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이 빛을 꺼버리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나로부터 빛이 한번 비출 수 있게 된 곳에는 내 지키는 자가 있고 대적자의 영향으로부터 빛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움을 피하기를 원할지는 단지 너희 사람들 자신에게 달려 있다. 나는 언제든지 너희가 빛을 갈망하면, 너희에게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항상 나로부터 진리를 제공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것처럼 나는 영을 통해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영접하고 이제 내 뜻대로 너희의 삶을 살면, 너희의 안은 스스로 밝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영원한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를 붙잡고 진실도 너희를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도달하기 위해 너희가 가야만 하는 길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귀환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때문에 항상 밝은 빛을 비추어 줄 나 자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높은 곳에 도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땅의 길을 갈 것이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즉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되는 너희의 목표와 너희가 가졌던 정해진 바와 성품을 알게 해주는 진리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깨달음과 지식이다.

B.D. No. 8239

1962년 8월 13일

항상 위로부터 빛이 전해질 수 있는 곳에서는 내 대적자가 이 땅에 전파시킨 어두움이 물러날 것이다. 자신 안에 내 사랑의 빛이 흘러가게 허용하는 사람들은 이로써 위로부터 너희에게 전해진 내 말을 읽고 심장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그들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 안에 빛이 빛나고 가장 밝은 깨달음에 도달하고 전에 그들에게 숨겨져 있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에 관한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의 빛은 단지 저항을 받지 않으면 강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단지 나에게서 듣기를 원하고 내 말이 너희 심장 안에 들어가게 허용하면, 너희는 영의 어두움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나 너희들 대부분은 이에 무관심하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일꾼을 통해 내 말을 받으면, 너희는 귀한 것을 받은 것이다. 너희가 나로부터 대화의 요청을 받는 것으로 느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임한 것이고 심장은 내 음성으로 감동을 받게 되고 너희는 너희가 영적인 깨달음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너희의 운명이었던 여명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된다.

그러나 내 말씀의 형태 안에서 깨달음이 너희에게 제공이 되면, 너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말해 너희가 너희를 생명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를 성취시키기를 원하면,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 너희는 단지 너희의 땅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너희에게 깨달음이 전해지면, 너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러면 너희 안에 빛이 되고 너희는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만약에 내가 너희가 빛을 갈망함을 본다면 나 자신이 너희의 생각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물질에 대한 갈망을 벗어나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는 높은 목표를 깨달았고 너희는 이 목표를 추구하고 목표에 도달하려고 할 것이고 이제 비로소 너희에게 삶이 살만하게 보이게 될 것이다.

내 뜻은 단지 너희가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너희가 빛을 갈망하는 것이고 너희가 전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안에 스스로 빛을 밝히지 않으면 너희의 삶은 단지 헛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너희 심장 안에 빛을 비추어 주면 내가 너희에게 빛을 의미하는 지식을 전하면, 너희가 이 빛을 나로부터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제 이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밝고 선명하게 깨닫는 가운데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출처를 의식하고 너희의 나와 하나가 되는데 있는 이 땅에 과제와 목표를 의식하며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위로부터 온 내 말을 듣고 실행하면, 너희가 단지 듣는 자가 되지 않고 내 말대로 행하면, 너희는 언제든지 나로부터 이런 지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고 너희에게 모든 연관관계가 선명하고 분명할 것이다. 너희는 내 성품에 관한 깨달음을 얻는다. 너희는 나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너희는 이제 나에게 너희의 사랑을 드리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죽음의 밤 가운데 머물 수 없다. 너희는 스스로 빛을 갈망한다.

나는 너희 안을 밝게 비추어질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어두움에 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다가가고 너희 심장 안을 비추어 주는 나 자신은 너희를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이제 너희가 자원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영원한 빛이다.

아멘

깨달음의 빛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

B.D. No. 7029

1958년 1월 31일

너희는 단지 위로부터 빛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깊이 낮은 곳에서는 단지 어두움이 너희를 감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내용이 위로부터 흘러왔는지 또는 깊은 영역에서 너희에게 흘러왔는지 너희가 선명한 지식을 받는지 또는 너희가 생각의 혼돈에 빠지는지 너희에게 연관관계가 선명한지 또는 한 질문에서 단지 다른 질문에 빠지게 하는지 쉽게 시험해볼 수 있다.

빛은 깨달음이고 선명한 지식이며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던 너희에게 설명한다. 그러나 영적인 내용이 깊은 곳으로부터 왔다면, 너희는 항상 선명하지 못한 가운데 있을 것이고 너희가 연관관계를 찾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고 너희는 항상 더욱 혼돈 된 생각을 할 것이다. 왜냐면 모든 생각의 오류는 막다른 길로 끝나기 때문이다. 너희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설명을 찾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를 만족시키는 답변을 진지하게 얻기 원하면, 이런 답변을 얻지 못한다.

반면에 위로부터 온 빛은 모든 어두운 구석까지 밝히고 빛이 침투할 수 없는 곳이 없다. 사람은 모든 영적인 연관관계에 대한 하나님 자신과 창조에 대한 그의 구원계획과 그의 사역과 역사에 관한 선명한 개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빛은 단지 빛의 출처인 영원한 원래의 빛으로부터 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을 받은 사람에게 모든 문제와 모든 질문들이 해결된다.

그는 이를 이해할 수 있고 이웃이 진지하게 설명을 받기 원하면, 그가 이해할 수 있게 이에 관해 말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낮은 곳으로부터 근원되어 나온 것은 항상 더욱 혼란을 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장 불합리하게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영적인 내용의 출처를 통해 영적인 내용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진리를 향한 갈망으로 분별하는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다.

진리를 향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주변에 빛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두꺼운 포장을 하기 때문에 빛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빛은 존재하고 밝게 빛난다. 이로써 빛은 다른 사람을 끌어 드린다. 이 빛은 단지 저항을 받는 곳을 강제로 침범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시험해보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영을 밝게 해주기를 구하고 올바른 생각하게 해주기를 구하면, 모든 저항을 포기한 것이다.

그러면 빛의 비추임이 모든 능력으로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는 단지 하나님만이 그에게 줄 수 있는 지식을 얻을 것이다. 이 지식은 그를 행복하게 하고 이 지식을 전하게 내면에서 그를 재촉할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의심은 더 이상 없고 답변을 얻지 못한 질문이 없다. 왜냐면 질문이 단지 생기면, 생각으로 또는 직접 듣는 음성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받음으로 질문에 대한 선명한 답을 얻기 때문이다. 사람은 위쪽과 연결을 이뤄야만 한다.

그는 낮은 곳에서 그에게 빛이 비추일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는 이 땅이 또는 이웃이 아직 깊은 영역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영접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내용을 전달받으면, 진지하게 시험해봐야만 한다. 왜냐면 사람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가 이 전에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지 않으면, 그가 위를 향해 그의 지식을 구하지 않으면, 빛이 위로부터 자신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지 않으면,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은 사람들에게 전적인 빛을 줄 것이다. 이로써 사람들에게 창조의 비밀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체험을 이해할 수 있고 (1958년 1월 31일)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그들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깨달을 수 있다. 한번 이에 관한 깨우침을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자기 삶의 길을 의식적으로 간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를 추구한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에게 깊은 곳에서 나온 영적인 내용이 전해지면, 이런 영적인 내용이 그를 생기 있게 해주거나 의식적으로 혼에 대한 작업을 하게 자극해주지 못한다. 왜냐면 그 자신이 이런 영적인 내용으로부터 무엇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게 했는지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새로운 설명과 이유를 제시할 것이고 항상 또 다시 이를 버릴 것이다. 그는 하나님 자신과 그의 역사에 대한 선명한 개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그는 그를 무관심하게 만들거나 또는 불쾌하게 하는 그에게 빛을 주지 못하고 항상 그의 내면에 어둠을 확장시키는 혼돈 된 개념을 얻을 것이다. 너희 사람들이 선명하게 볼 수 없는 동안에는 너희에게 위로부터 빛이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너희가 행복하게 느끼게 하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아님을 안다. 왜냐면 너희가 비록 이성적으로 깨우침을 얻고 추구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 자신이 너희를 인도하면, 비로소 너희가 출구를 찾을 수 있는 미로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불러야만 하고 그에게 빛을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빛이 비추어 내릴 것이고 이제 진리가 태양처럼 밝게 너희 앞에 전파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너희가 소유한 영적인 내용이 전적인 선명함과 깨달음을 주는지 점검하라. 너희가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모든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지 점

검하라. 너희에게 제공 된 지식이 너희에게 만족을 주는지 너희에게 떠오르는 사랑과 지혜와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합당한지 점검하라.

너희가 어둠 속에 거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믿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모든 빛을 주기 원한다. 그는 순수한 진리로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기 원한다. 그는 너희가 다시 빛이 가장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알았던, 원래의 상태에 도달하기 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항상 또 다시 자신의 빛을 이 땅에 전한다. 이 빛이 자신 안에 흐르게 하는 사람에게 영원으로부터 빛이 항상 더욱 임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길 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 축복되고 영원히 축복되게 머무를 원래의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아멘

세상의 지식은 지혜가 아니다.

B.D. No. 6931

1957년 9월 30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 영을 밝혀 주는 내 빛을 비취줄 수 없는 동안에는 너희는 지혜롭지 않다. 왜냐면 너희가 지식으로 여기는 것이 비록 이 지식이 진리에 가까이 다가갔다 할지라도 너희를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 지식은 단지 세상적인 지식이고 이 땅의 삶을 위해 가질 만한 지식에 해당되는 모든 지식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내일 너희의 삶을 마치고 어떠한 영적인 성장을 나타낼 수 없으면, 이런 지식은 너희에게 소용이 없다. 그러나 영적인 추구를 하지 않는 너희는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지혜는 단지 나로부터 나오고 긴밀하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쇠하지 않는 지식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항상 단지 이성의 결과만을 활용한다. 너희는 영적으로 얻은 결과에 어떠한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다. 이로써 너희는 단지 너희 내면이 아주 어둡다는 것을 너희 안에 빛이 비치고 있지 않음을 너희가 불쌍하게 여길 만한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왜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았던 시간이 헛된 시간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얻은 단지 세상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는 영적으로 볼 때 가치가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깨달음으로 만족하면, 너희는 잘못 된 재물을 추구한다.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너희의 이 땅의 삶은 목적은 유일하게 영적인 어둠을 바꾸는 일이고 너희 혼이 거하고 있고 빛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너희의 걸형체를 해제하는 일이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조차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과제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단지 세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너희가 날카로운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단지 순전히 세상적인 방향으로 연구하고 생각하는데 사용하면, 너희 자신이 지혜롭다고 믿는다.

너희는 이 땅에서 높은 명성에 도달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의 이웃들에 비해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를 지혜롭다고 일컬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의 이성의 능력으로 너희 사람들이 사는 영역 밖에 있는 것을 헤아려 볼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의식적으로 너희에게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본다면, 너희가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으면, 너희가 너희의 이 땅의 과정의 성공을 생각해본다면, 너희는 너희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함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가졌던 자신감이 너희에게서 떠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아마도 너희의 노력이 헛됨을 의식할 것이다. 너희가 아직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목적에 관한 작은 빛의 여명에 대해 너희는 감사할 것이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너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이 너희에게 제공되면, 너희는 스스로 거만한 가운데 이 빛을 무시한다. 왜냐하면 역광의 영향을 받는 너희는 부드러운 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드러운 빛이라 할지라도 이 빛은 너의 심장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에 역광인 너희의 이성의 지식은 어떠한 내적인 밝음을 주지 못한다. 빛이 너희에게 특별하게 비치면, 너희는 이 빛을 절대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 빛을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역광을 통해 이미 약해진 눈을 감아야 하고 올바른 빛이 너희 심장 안에 비치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너희는 언젠가 지혜로운 말이 너희 귀에 도달하면, 너희의 모든 세상적인 지식을 뒤로 하고 단지 조용한 가운데 들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을 생각해볼 시간을 가져야 하고 이에 관한 해명을 얻기를 갈망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너희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식은 너희가 추구했던 세상 지식보다 진실로 더 큰 성공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세상 지식은 너희 자신의 육체가 쇠하는 것처럼 쇠하게 되고 혼에게 가장 적은 성장이라도 줄 수 없다. 세상 지식은 혼이 인간으로 이 땅에 들어섰을 때와 같은 어두움에 머물게 한다.

아멘

너희는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B.D. No. 7771

1960년 12월 13일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일어났던 일이 내가 한때 내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 가르치는 점에서 현재에도 똑같이 일어난다. 즉 너희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들 가운데 거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침을 전해 주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단지 나 자신이 전할 수 있는 지식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나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믿었다. 그들은 곧 이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가르침을 영접했다. 이

처럼 현재에도 내가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한다.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인 아버지의 음성을 깨닫는다. 그들은 내 가르침을 영접한다.

내가 너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은 내 신적인 사랑의 계명이다. 왜냐면 너희가 사랑을 통해 너희 안의 영이 깨어나게 하면, 너희가 비로소 나를 올바르게 깨닫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 안에 있는 영은 내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영이 너희를 가르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게 한다.

나는 더 이상 당시처럼 육체적으로 이 땅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영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면, 이를 통해 나는 너희에게 내 임재를 증명한다. 너희는 당시에 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말함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랑 안에서 살아야만 한다. 왜냐면 사랑이 없이는 너희 안의 영이 절대로 생명으로 깨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이 없이는 영은 자신을 표현할 수 없고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으면, 나는 항상 사랑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세울 것이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내 사랑의 계명을 강조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가장 큰 사랑의 역사인 내 십자가에 희생의 죽음을 강조할 것이다. 이 역사는 단지 사랑이 완성할 수 있는 였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내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의 최고점에 도달했고 너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을 받게 했다. 이처럼 현재도 내 말은 항상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내용으로 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 사람들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죄짐을 해결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내 구속 역사를 인정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을 인정하면, 그리고 너희의 죄짐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이런 구속사역의 원인에 대해 너희가 한때 지은 큰 죄짐에 대해 내 아주 큰 사랑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

이런 지식은 내 말을 통해 너희에게 주어진다. 한때 구속사역을 체험하고 이를 증거해야 했던 내 제자들을 내가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는 나 자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내 말을 듣는 너희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왜 내가 이 땅의 과정을 갔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그리스도를 거절해서는 안됨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러면 그들은 나 자신을 거절하게 되고 영원히 더 이상 생명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젠가 나를 찾아야만 한다. 왜냐면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원해야만 하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인도하는 길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길을 택해야만 한다.

그들은 믿는 법을 배우기 위해 영원한 사랑에 의해 자신이 사로잡히게 하기 위해 사랑 안에서 살아야만 한다. 나는 절대로 사람들을 그들 자신에게 맡겨 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

희에게 말할 것이고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내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말씀이 전달됨.

B.D. No. 3596
1945년 11월 7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처럼, 나는 말씀 안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를 홀로 두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느껴야 한다. 이처럼 나는 말씀 안에서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왜냐면 말씀이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나의 임재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내 가까이에서 안전하게 느낀다. 나 자신이 영이고, 물질의 형태에 묶여 있지 않고, 최고의 가능성을 가진 힘과 빛이고, 그가 가진 의지와 그의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 존재라고 해야만 하고, 사랑과 지혜로 역사하고, 그러므로 무한을 향해 빛과 능력을 발산한다.

힘과 빛의 원래 초기의 성분을 가진 힘과 빛을 받을 만큼 아직 성숙하지 못한 너희가 알 수 있도록, 나의 사랑이 빛과 힘에게 형체를 부여했다. 이 형체가 나의 말씀이다. 너희가 성숙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자체가 빛과 능력인 영은 단지 빛과 능력으로부터 나온 형체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발산인 말씀 안에 빛과 능력이 담겨 있고, 나의 말씀이 내가 가까이에 있음을 증거한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고, 이와 동시에 빛과 능력을 영접하기 원하는 너희에게 나의 영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가 나의 임재를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비록 내가 볼 수 없게 너희와 함께 하지만, 너희가 말씀 안에서 나를 깨달을 때, 너희는 나의 임재에 대한 증거를 너희 손에 가지고 있다. 왜냐면 나 자신이 말씀이고, 너희가 나와 나의 임재를 갈망할 때, 너희는 말을 중단없이 받기 때문이다. 말씀 안의 나를 깨달는 사람은 나의 임재 때문에 깊은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의심이나, 어떤 불안함이나, 어떤 염려도 그를 떠난다. 왜냐면 육체와 혼의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그를 도우려는 존재가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의 뜻은 능력과 축복을 주는 것이다.

왜냐면 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은 내가 그 안에서 거하기 위해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심장의 문을 열기 때문이다. 나는 영원히 그를 떠나지 않는다. 왜냐면 그의 의지가 한번 나에게 향했고, 말씀 안의 나를 깨달은 사람에게서 말씀은 내가 표현하는 수단인 형체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형체를 통해 영원 전부터 온전한 영이, 불완전한 존재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인도하기 위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낸다. 나는 너희 가까이에 있다. 나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거나 또는 받는 사람의 입을 통해 나의 말을 받은 너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며, 염려하느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왜냐면 너희가 나의 말씀을 갈망함을 통해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나에게 증명하기 때문이다. (1945년 11월 7일)

너희에게 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가정 안전한 증거임을 너희에게 줘야만 한다. 나로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임재를 원하지 않고, 심장이 나에게 다가가도록 그에게 재촉하지 않는다. 왜냐면 나의 사랑의 표현된 후에, 나의 임재의 증

거가 나타난 후에, 이런 소원을 갖기 때문이다. 나의 말씀에 대한 소원은 아주 여러 가지 종류로 나타날 수 있다. 사람이 영적인 격려를 통해 위로를 받고, 강해지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영적인 분야에 지식을 더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고, 나에게 감사함으로 나를 생각하고, 이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 그는 나와 단둘이 깊이 있는 교제를 원할 수 있고, 생각으로 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다. 그럴지라도 그의 감각이 항상 영적인 방향을 향해만 한다.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찾게 할 것이고, 그의 부름이 나를 그에게 인도한다. 나는 나의 말씀을 통해 그에게 나를 알려줄 것이다. 왜냐면 다른 방식으로는 그가 나의 임재를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나의 음성을 스스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영에게 직접 역사하거나, 직접 나의 음성을 스스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나의 위임으로 그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영의 세계에서 생각을 통해 그에게 전하거나, 내가 이 땅에 전해준 말을 읽음으로 받거나, 그리고 사람들과의 영적인 대화를 통해 받는다. 나 자신이 나에게 요청하는 심장을 항상 받아드릴 것이고, 스스로 나를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말씀이고, 그러므로 진실된 의도로 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내가 말하도록 허용하는 사람 곁에 나 자신이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하늘의 양식인 나의 살과 나의 피를 줄 것이다. 그가 나 자신을 먹고 마시기 위해 내적으로 깊이 나와 연결되어야만 한다. 나 자신이 말씀인 것을 깊게 믿고, 나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의 심장으로 나를 영접한다. 나는 나의 임재로 그를 항상 행복하게 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너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나의 약속은 말 그대로 성취된다. 왜냐면 나의 말씀은 진리이고, 모든 영원까지 진리로 남기 때문이다.

아멘

빛과 죽음의 그림자. 거짓 빛과 하나님의 질병과 고난에 대한 도움.

B.D. No. 4969

1950년 9월 19일

나의 말씀에 감명받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 속에 서있다. 그는 어두움을 선호하여 빛을 향한 접근을 거부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눈을 감아서 빛을 깨닫지 못한다. 그는 영의 나라에서 발산하는 부드러운 빛을 보지 못하도록 번쩍이는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눈을 멀게 하거나 세상의 빛을 위해 그것을 무시한다. 세상의 모든 일은 그를 포로로 데려가고 이제는 빛의 사자가 그에게 세상을 이기고 혼의 구원을 위해 이 땅의 재물을 포기하라고 제안하는 나의 말씀으로 그를 만났다. 그에게 혼은 개념이 아니다. 왜냐면 그는 세상에서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영적인 죽음을 향해간다.

내 말씀은 그에게 영적인 보물을 줄 수 있고, 내 말씀은 그에게 빛을 줄 수 있다. 이 빛은 그의 혼을 행복하게 한다. 내 말씀은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빠져, 단지 그의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을 찾고 갈망한다. 세상의 거짓 빛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은 어둡게 머문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세상을 경멸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를 돕

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나는 그에게 세상 재물이 무상하고 무가치한 것을 보여주고, 나는 또한 그의 몸을 약하게 하여 그의 몸의 마지막을 그의 눈 앞에 보여준다.

나는 또한 인간에게 가장 갈망할 만하게 보이는 것을 파괴하고 사라지게 한다. 나는 사람이 이 땅의 고난과 위험에 빠지게 하고 고통과 질병을 겪게 하고, 세상이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나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큰 부유함에서 빈곤에 빠지게 한다. 그러나 항상 단지 그가 갈망하는 것의 무가치함과 무상함을 깨닫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항상 또 다시 그가 내 말씀을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이로써 그가 말씀 안에서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을 대체하게 한다. 나는 그를 더 이상 거짓 빛이 없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로써 그가 위로부터 오는 부드러운 빛을 보고 이 빛으로 향하게 하고, 그가 죽음의 밤에서 생명의 빛으로 탈출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고난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또 다시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세상의 권세자에게 복종하고, 혼의 성장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은 그들의 삶의 과정이 혼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 채로 곧 끝나게 될 사람들을 나에게 이끌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둠이 있는 모든 곳에서 빛을 비추고, 부드러운 빛이 자신에게 비추게 하는 사람은 우선 어둠에서 여명의 빛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그를 행복하게 할 것이고, 그 안에 빛을 향한 갈망이 자라나게 할 것이다. 내 말씀이 그의 심장에 감동을 줄 것이다. 그는 내 말씀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달을 것이고, 유일한 삶의 길로 깨달을 것이다. 그의 혼은 죽음의 그림자에서 빛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말씀의 능력. 날마다 행하는 혼에 대한 작업.

B.D. No. 7514a

1960년 2월 5일

너희는 내 말로부터 너희에게 부족한 능력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나 자신이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이 실제로 은혜의 역사임을 이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가 없을 수 없음을 생각해야 한다. 나 자신이 내 사랑으로 너희에게 비추어 준다는 것을 너희가 이를 이제 너희 혼에게 진실로 큰 복을 주는 능력을 받는 형태로 느껴야만 함을 생각해야 한다.

만약에 너희가 나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면, 너희는 육체적으로도 강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1960년 2월 5일)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새로운 은혜가 부여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미리 알고 혼이 위험 가운데 있는 동안에 너희의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실패할 것을 미리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단지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은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한 내 말을 붙잡으면, 너희는 어떠한 실패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희는 너희가 필요한 도움을 항상 나로부터 얻을 것이다. 너희는 단지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너희 자신을 나에게 의탁하면 된다.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단지 내 말을 듣거나 또는 읽기만 하면 된다.

이를 통해 내가 언제든지 아버지로서 내 자녀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런 음성을 통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위험한 상태는 해결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도움이 올 때까지 축복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게

하면, 그러나 이런 일이 내 음성을 들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기만 하면, 너희에게 흘러가는 내 말은 그 안에 능력을 담고 있다.

너희는 말씀을 문자로 읽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모든 혼으로 참여해 내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 안과 겉에서 내 말씀의 역사를 느낄 것이고 이와 다르게 될 수 없다. 왜냐면 나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능력이고 능력은 역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럴지라도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믿으면, 단지 너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나와 연결을 충분히 긴밀하게 이루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단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내 말에서 사랑을 느낄 것이고 너희의 혼은 강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 연결을 이뤄야 한다.

B.D. No. 7679

1960년 8월 21일

너희가 단지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머물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의 길에서 나를 항상 너희의 인도자요 동행자로 삼으면, 너희 심장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이 길은 항상 밝게 빛날 것이다. 너희는 어두움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이 너희에게 빛을 비추고 선명함과 깨달음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너희 안에서 스스로 답변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 답변을 진리로 깨달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의 눈이 먼 상태를 벗어나기 원하면, 너희가 나와 너희와의 관계에 대한 너희의 이 땅의 과제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원하면, 항상 먼저 나와 연결을 이뤄야만 함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갈망하고 나 자신에게 빛을 주기를 구하면, 너희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알아야 한다. 나는 항상 너희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알맞게 가르쳐 줄 수 있다. 너희는 이 능력을 높이려고 열심히 시도해야 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에게 어떤 것도 비밀로 남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장 깊은 지혜를 알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너희 안의 영의 불씨와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머무는 너희의 의지를 통해 행동하는 내 영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나와 연결을 이루라. 그러면 너희의 의지는 올바른 방향으로 향한다. 그러면 너희 안의 영의 불씨는 생명으로 깨어나고 이제 너희 안에서 표현하며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칠 것이다.

이를 통해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이 내가 말하게 함을 깨달을 수 있다. 나로부터 들으려는 의지가 나 자신이 말하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사람이 자신 안에서 내 음성을 듣는 일을 의심할 필요 없다. 난 항상 단지 사람 자신이 허용하는 만큼, 다시 말해 그가 내 말을 듣기 원하는 것에 따라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만약에 그가 전적으로 조용하게 단지 내가 그에게 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나는 그에게 그의 지식을 넘어서는 영적인 내용을 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비로소 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면 그러면 그에게 그가 전에 전혀 소유하지 못했던, 그가 학습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닌 단지 내 영이 전할 수 있는 지식이 그에게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독서를 통해 외부로부터 가르침을 통해 얻은 어느 정도 지식에 도달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을 전적으로 자유롭게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단지 그들의 자세에 알맞게 전할 수 있다. 내 말을 들으려는 소원이 내 음성을 듣는 일을 보장한다. 그러나 항상 단지 사람이 어느 정도 그의 혼이 성장에 도달해야 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런 성장 정도가 다시 나와 긴밀하게 연결된 정도를 정하고 자녀가 내 말을 들으려고 갈망할 때 나에게 자신을 드리는 정도를 정한다. 이에 합당하게 영적인 체험을 할 것이다. 왜냐면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에게 표현하면, 그는 진실로 자녀에게 가장 적당한 것을 주기 때문이다. 단지 나 자신이 내 사랑과 지혜로 적당한 것을 정한다.

왜냐면 나는 혼들을 얻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대적자에게 잃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혼들이 성장하게 지원해주기 원한다. 나는 그들 내면이 빛이 되기 원하고 그들의 지혜가 증가되기 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종말 전 마지막 때에 가르칠 수 있기 원하고 그들이 나에게 속한 마지막 제자로서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갈 수 있기 원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B.D. No. 7489

1959년 12월 29일

너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주님은 너희 부름을 항상 들을 것이다. 왜냐면 주님은 너희 생각이 자기에게 향하길 기다리고 있고 너희 심장 안으로 그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려고 기다리기 때문이다. 왜냐면 비추어 주기 위해 너희 심장이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 생각을 나에게 향함으로써 심장을 연다. 모든 영의 생각은 너희와 빛의 나라가 연결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모든 영의 생각은 너희를 위해 언제든지 가장 가치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다. 왜냐면 모든 연결은 비록 너희 육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너희 혼이 행복하게 느끼는 너희에게 빛과 능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장 작은 위험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이를 통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그와 연결을 이루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동안 많은 위험들은 항상 단지 너희가 그에게 도움을 청하게 해야 한다.

왜냐면 그는 너희가 항상 어디서든지 자신을 생각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큰 축복을 체험하기 원하면, 너희의 연결은 아무리 긴밀해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그와 함께 너희의 길을 갈 정도로 그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가 없이는 너희가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을 정도로 너희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에게 조언을 구할 정도로 너희가 더 이상 홀로 가지 않고 너희의 이 땅의 길에 너희의 인도자가 되고 인도자로 남기 원하는 그의 지속적인 동행을 받으며 갈 정도로 성장해야 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는 확실하게 목표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의 안건이 작을 지라도 그와의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작은 안건들이 너희로 하여금 이 연결을 이루게 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와 영원히 영원이 연결되길 갈망하는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를 마음에 들어 할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에게 자유의지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생각을 한때 전적으로 속은 가운데 떠났던 분에게 다시 향하게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인간인 너희에게 이렇게 하게 강요할 수 없다. 너희가 자유의지로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자유의지를 세상과 세상의 자극을 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영원히 다시 얻기 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그에게 향하는 모든 생각이 그에게 귀환을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항상 더욱 진지하게 이 귀환을 추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너희의 생각이 한때 너희를 생성되어 나오게 한 그에게 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다. 왜냐면 너희가 사랑으로 나에게 향하는 길을 찾고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에게 강요하면서 이 길을 가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옛 관계를 다시 만드는 유일한 연결수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너희에게서 받길 원한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방식으로 너희를 끌어드려, 너희 사랑을 얻으려고 한다. 비록 이런 일이 모든 종류의 위험을 통해 일어날지라도 그는 너희가 자신과 연결을 이루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 연결은 아버지가 많은 종류로 증명해 줄 사랑 안에서 이뤄질 것이다. 이로써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사랑을 얻고 자녀를 영원히 아버지와 연결시키는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생각을 항상 그리고 항상 또 다시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두라.

너희 삶은 곧 더욱 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어려움을 가진 이 땅의 삶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곧 단지 너희 이 땅의 과정을 마치면, 너희가 들어가게 될 너희의 진정한 고향인 영의 나라를 위해 살 것이다.

아멘

영의 깨우침을 받기 위한,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한 기도.

B.D. No. 5168

1951년 7월 10일

너희의 기도는 항상 다음과 같아야 하고, 다음과 같이 머물러야 한다. "아버지,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소서" 너희는 이런 기도를 통해 너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사랑을 받고 영의 깨우침을 받고,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 구하며, 너희의 영이 가난함을 증거한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 줄 것이다. 왜냐면 나는 너희의 영적인 공급을 위한 모든 기도를 듣고, 성취시켜주고, 너희가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 혼의 행복을 위해 돌본다면, 너희는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한 것이

다.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너희의 자유 의지를 위협하게 하지 않으면서 너희에게 주는 일이 나에게 쉽게 되고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아직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의식하고 자유의지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돕도록 나에게 다가온다. 그러면 너희는 진실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심장이 너희의 나를 향한 갈망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돌보고 이로써 너희가 성장하고 양육을 받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고, 나에게 향하고 높은 곳으로 향하고 힘과 은혜와 영의 깨우침을 받는 길을 향하도록 가르쳐야만 하는 어린아이처럼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가 이런 것을 구하면, 너희는 모든 것을 즉 내 사랑과 긍휼과 너희의 이 땅의 과제에 대한 전적인 선명함과 해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깨달음의 상태 들어서고, 전에는 아직 눈이 멀었고 이로써 불행하였지만 너희는 이제 보는 가운데 살게 된다.

나의 능력의 흐름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너희를 강하게 이끄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느낀다. 비록 너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은혜를 활용하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도록 나는 쉬지 않고 내 은혜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은혜를 활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에게 영을 깨우쳐 주기를 구하고, 이로써 너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와 축복받기 위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너희가 어떤 길을 가야만 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깨닫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힘과 은혜를 구하고, 영을 통해 받게 깨우침 받기를 구하면, 너희는 모든 것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 심장이 이미 사랑의 능력의 흐름에 열린 것이고, 내 영은 너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영에게 더 이상 방해하지 않고, 너희 스스로 내 은혜와 사랑 흐름에 자신을 열고, 이 흐름이 자원하여 나에게 향하는 이 땅의 자녀들 안에서 내영이 거부할 수 없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너희를 강력하게 사랑한다. 그러나 내 은혜가 먼저 너희를 사로잡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온전하지 못한 상태 때문에 너희가 내 사랑의 증거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은혜에 공의가 역사하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스스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나에게 이끌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내 은혜를 영접할지를 정할 수 있다. 나는 나를 따르도록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은혜는 저항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한다. 모든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저항을 포기하는 일이다. 너희가 너희의 기도를 통해 내 은혜를 영접하고 활용하려는 의지를 증명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줄 수 있음을 생각하라.

그러면 힘과 은혜와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기를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진정한 겸손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런 공급이 필요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겸손한 사람에게 내 은혜를 부어 준다. 그가 나를 부르면, 그는 이미 그의 겸손으로 나에게 현저하게 가까이 다가온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자녀의 관계를 다시 이뤘기 때문이다. 그가 그 안에 나를 향한 사랑과 나의 대한 겸손을 갖게 되었고, 자신을 형성하여 내가 내 은혜와 내 힘과 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공급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영은 이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그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아멘

내 뜻이 영원 가운데 맞이할 너희 운명을 정하지 않지만 너희 자신이 너희의 의지를 통해 너희 운명을 영광스럽거나 또는 끔찍하게 만든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언제든지 끔찍한 상태를 바꿀 수 있고 너희가 원하면, 너희는 언제든지 내 지원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직 아주 어두울지라도 빛이 너희 가까이로 전해지고 너희가 이제 빛을 갈망하면, 너희는 항상 빛 안에 머물 수 있게 되고 너희는 더 이상 어두움 속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게 된다. 너희의 의지는 저세상의 나라에서 보응을 받게 된다. 빛으로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거부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어두운 영역에서 보다 더 편안하게 느낄 것이다. 너희는 언젠가 어두운 영역을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벗어나는 일이 자원해서 일어나야 한다.

이 땅이든 저세상의 나라이든 어두운 영역에서 거하는 너희 모두는 평화가 없고 빛이 없고 힘도 없는 불행한 피조물이다. 이런 상태는 죄의 결과이고 이 죄가 영원에 영원한 기간동안 너희에게 짐이 되었고 너희가 이 땅의 삶에서 너희의 사랑 없는 삶의 방식을 통해 이 짐을 증가시켰다. 너희가 이런 죄짐을 벗어나기 전에는 너희의 상태가 나아질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죄짐이 너희에게서 제거되기를 원할 수 있다. 이로써 너희가 빛과 축복에 도달하게 된다. 너희에게 짐이 되고 너희에게 큰 고통을 주는 속박에서 해방되려는 의지를 먼저 가져라.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분에게 너희 자신을 맡기고 그 분에게 너희를 돌봐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결단을 하라. 너희 모두는 너희의 죄짐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한 분에 대해 알고 너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나 모두가 그 분과 그 분의 구속사역을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분이 너희의 응급 상황에서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너희를 깊은 곳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너희에게 빛과 생명을 줄 수 있고 또한 주기를 원하는 유일한 분이다. 그러나 너희 자신이 그 분을 불러야만 하고 도움을 요청해야만 한다.

그 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분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는 영원히 어두움 속에 머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없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계속해서 그 분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항상 또 다시 너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희망의 희미한 빛이 너희에게 제공 된다. 너희가 이제 너희의 눈을 빛으로 향하게 하고 너희가 완전히 완고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항상 십자가가 빛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너희를 만나러 오는 그 분의 큰 긍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자신이 구원받기 원하면, 너희는 그 분이 너희를 구원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반복해서 말한다. 내가 너희를 저주한 것이 아니다. 내 의지는 너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운명을 정하지 않았고 너희가 스스로 그런 운명을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피한다면, 너희가 스스로 그런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으로부터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이다.

너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거나 또는 이미 이 땅의 곁형체를 벗었을지라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너희의 안과 너희 주변이 빛이 된다. 그러나 내가 너희 죄가 속죄를 받도록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기 위해 그 안에서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너희는 어둠 속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너희는 또한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 자신의 죄짐을 전적인 믿음으로 나에게 넘겨주는 사람이 단지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런 일은 유일하게 너희의 뜻에 달려 있다.

내 사랑은 빛을 전하는 존재들을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보내는 일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 빛을 전하는 존재들은 너희에게 내 뜻을 알려주고 너희 안에 빛을 밝혀준다. 너희 자신에게 빛이 비추게 하라. 너희 자신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 어둠이 물러날 것이고 밝은 빛이 될 것이고 모든 어둠의 공포가 너희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빛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영원히 축복된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빛이 있다.

B.D. No. 6061a

1954년 9월 22일

내가 내 영을 부어줄 수 있는 곳은 어디나 빛이 있다. 왜냐면 나 자신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내 말씀이 존중받고 사람들이 나와 연결을 갈망하고 내 말씀을 그들 자신에게 말한 것으로 듣는 곳에 어둠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줄 수 있게 하는 곳에 빛이 있다.

그러나 단지 그런 곳에 빛이 있다. 왜냐면 내 영의 역사를 통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빛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훨씬 더 많은 어둠이 퍼져 있다. 왜냐면 내 영이 단지 희귀하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밝은 빛이 발산될 수 있고 가장 깊은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은 깨달음의 빛 가운데 행복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 그는 단지 영적으로 헤아려볼 수 있는 영역을 이성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영을 통해 나 자신을 계시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영을 부어주는 역사는 그들이 전혀 모르는 개념이다. 그들이 아는 모든 것은 첫 번째 제자들의 오순절 체험이고 이를 일회적인 일로 여기고 이런 과정이 내 첫 번째 제자들과 같은 전제 조건을 갖춘다면 모든 사람에게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내 피조물과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지만 피조물이 사랑을 행하거나 또는 긴밀한 생각을 통해 나와 관계를 이루면 단지 나 자신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고 그들이 내 음성을 들을 정도로 내가 그들에게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왜냐면 그들에게 내 음성을 들으려는 갈망이 없고 이로써 또한 그들이 그들의 영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영을 부어주는 일은 생각을 발전시키는 능력이다. 이로써 생각이 낮은 영역으로 향하여 인간의 깨달음이 증가하고 전에 설명할 수 없는 질문이 선명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내 영이

그에게 주는 지식을 얻는다. 영을 부여주는 일은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제 나로부터 그에게 전하는 힘을 받는 역사이다. "내 영이 모든 육체 위에 부여줄 것이다." 빛과 힘이 나로부터 흘러 나와 사람이 자신을 열고 자신을 나 자신과 내 빛과 내 힘을 자신 안으로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도달한다. 사람들은 이런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고 또한 알 수 없다. 왜냐면 그들이 특정한 조건 아래서 이런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일은 자신을 사랑으로 만드는 일과 같다. 그러나 사랑이 부족하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은 나 자신이나를 계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내 영의 역사는 나와 직접 연결을 이루고 내 음성을 듣는 일을 의미한다. 영이 깨어난 사람을 단지 영을 부음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는 이제 내 영이 역사할 수 있게 하는 나와 연결을 이미 이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영을 부여주는 역사를 교리로 만들 수 없다. 왜냐면 영을 통해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 동안에는 영을 부여주는 역사를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영의 역사를 믿을 수 있고 사랑을 행함으로 자신을 형성하여 내 영을 그들에게 부여줄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사랑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어둠 속에서 살고 빛이 비치는 곳을 보지 못하고 빛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면 외면한다. (1954년 9월 22일) 그러나 그들이 빛 안에 거할 때 그들은 단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이 자신들의 어둠을 이 땅에서 부족함으로 깨닫지 못할지라도 어둠이 앞으로 저세상에서 그들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게 할 것이다. 저세상에서 그들에게 번쩍이는 빛의 불씨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면 그들은 아직 저세상에서도 빛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나라로 가는 문이다.

B.D. No. 5931

1954년 4월 15일

너희가 단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올바른 문지기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면, 하늘나라의 문이 진실로 너희를 위해 열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너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킬 수 있고 그럴지라도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문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문이 닫혀 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인도에 자신을 맡기기로 정할 때까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향하는 길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든 영의 나라에서 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너희가 위험과 비참함 가운데 살게 되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자 구원주로 인정할 때까지, 너희는 빛의 나라 밖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너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해야만 하고 너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거할 때 보여준 길로 가야만 하고 너희 모두는 그를 따라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길이 곧바로 하늘나라로 이어지고 너희가 한때 생성되게 한 아버지에게 돌아 가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너희가 항상 잘못된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너희가 올바른 길을 보

지 못하고 모든 너희 앞에 빛이 없고 너희가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너희는 예수를 너희의 인도자로 선택해야만 하고 저항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야만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통해 하늘 나라의 문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너희 사람들을 위해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해 속죄의 길인 무한한 고난의 길을 갔고 아버지께 가는 길을 가로 막는 모든 장애물을 치웠고 너희가 단지 너희를 앞서 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너희가 이제 자유하고 쉽게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너희의 짐을 덜어주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와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므로 그들의 큰 죄짐을 인정하지 않는 혼들은 평화와 빛의 나라에 들어 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항상 또 다시 쓰러지고 혼자서 일어설 수 없게 되고 위로 향하는 길을 보지 못하고 항상 아래로 향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영원을 향한 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육신의 죽음 후에 영의 나라에 들어가는 혼들에게 자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거나 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혼들의 의지에 따라 혼을 분리하고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예수 안에서 그들의 영원한 아버지를 보고 영원에 영원까지 아버지께 속하게 된 사람에게 또한 복이 있다. 예수는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로 인도하고 그의 나라는 그들에게 셀 수 없는 축복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문은 대적자들에게 닫힌 채로 머물러 있고 그들이 그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고 세상을 죽음과 죄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까지 그들은 끝없이 오랫동안 밖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아멘

빛의 영역. 서로 다른 빛의 세기. 하나님의 자녀권.

B.D. No. 3195

1944년 7월 22일

영의 세계에는 많은 단계가 있다. 이런 단계들은 아주 서로 다르게 강한 빛의 비추임으로 알 수 있는, 혼의 성장 정도에 합당한, 많은 축복의 단계들이다. 존재의 혼이 빛의 나라에 들어가면, 행복과 축복이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의 발산을 받을 수 있는 일은, 비록 존재가 자신의 성장 정도에 합당하게 단지 아주 적은 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항상 축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축복은 존재의 사랑의 역사에 합당하게 증가되고, 이는 그의 능력이 증가되는 일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더욱 증가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는 일을 의미한다.

존재는 제한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고, 이런 상태는 존재가 생명과 자유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을 항상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행하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에게 계속하여 흘러가고, 능력을 받는 일이 존재 안에 깊은 행복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는 계속하여 일하고, 능력을 전달해,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을 이 능력으로 행복하게 하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동시에 자신이 항상 더 큰 온전함에 도달하도록

성장시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힘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면서, 사랑 안에서 다시 역사한다. 존재를 감싸는 빛은 이제 항상 더욱 밝게 빛날 것이고, 빛의 나라에는 제한이 없다. 빛의 영역은 존재가 하나님의 빛을 자신 안에 영접할 수 있는 모든 곳이고,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되는 성장 정도에 도달한 모든 곳이다. 그러나 빛의 영역들도 서로 다른 정도의 강한 빛을 갖는다. 왜냐하면 힘을 받는 크기가 성장 정도가 높은 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존재가 온전하면 온전할 수록, 원래의 빛으로써 상상할 수 없게 충만한 빛을 모든 존재들에게 비추어 주는 영원한 신성 더 가까이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전한 영적인 존재들은 제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는 항상 영원한 신성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러므로 항상 성장할 수 있다. 존재는 사랑의 비추임을 직접 받을 수 있다. 그럴지라도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전적으로 하나가 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권은 원래의 빛과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최고의 축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빛의 나라에 있는 모든 존재는 말할 수 없게 행복하다. 그러나 존재가 스스로 더 많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그가 더 많이 빛과 능력을 받는다면, 항상 더 깊은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존재들은 제한을 알지 못한다. 존재가 항상 더 높은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의식이,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능력의 비추임에 제한이 없다는 의식이 아주 행복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일을 존재에게 하나님의 자녀권을 갖게 해주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연합과 다르게 평가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존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가 영의 나라에서 행하는 일이 빛의 존재가 하는 일과는 다른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적으로 본인 스스로 창조하고, 조성하는 일을 하고, 넘치게 행복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는 일이 최고로 높은 사랑의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의 축복은 측량할 수 없게 증가되기 때문이다. (1944년 7월 22일)

혼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허용하는 성장 정도에 도달하면, 이미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온전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단계가 있고, 이로써 축복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단계가 있다. 그러므로 혼은 항상 새로운 빛의 영역에 들어 갈 수 있고, 항상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온전함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혼은 항상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혼은 원래의 빛 가까스로 가고, 그럴지라도 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지 못했다면, 혼이 원래의 빛과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혼이 정화가 되어, 능력과 빛의 비추임을 영접할 수 있게 된 혼이 하나님의 사랑의 비추임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과 연합이 이뤄진다. 그러면 혼은 이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역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랑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 혼은 측량할 수 없게 높은 곳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정도로 성장한 영적인 존재들과 연합하여 능력을 증가시키고, 말할 수 없게 축복될 수 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빛의 충만함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존재들의 축복을 비교해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온전하지 못한 피조물이고, 그는 단지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물질이 없고 영으로만

되어 있는 영의 세계를, 그러므로 단지 사람 안의 영적인 존재인 혼이, 단지 정해진 성장 정도에 도달한다면, 비로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영의 세계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영의 나라를 상상할 수 없고, 단지 믿을 수 있다. 믿는 일도 만약에 인류가 단지 자원하여, 내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가르치도록 허용한다면, 비로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인류는 설명을 받기 위해 추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인류는 여러가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미 첫번째 빛의 비추임이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이제 깨달음이, 빛이, 다시 말해 순수한 진리를 아는 지식이, 서서히 성장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저 세상에서도 존재의 성장이 또한 이뤄진다. 존재는 항상 더욱 온전해질 것이고, 항상 더욱 하나님께 속할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권은 온전함 보다 더 높은 정도이다. 하나님의 자녀권 안에 끝이 없는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권은, 이 땅에 모든 감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모든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신실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고, 이 땅의 고난과 위험을 순복하며 자신이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려고 하고, 항상 지속적으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의 권리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신성을 닦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잡고, 자신을 향한 그들의 길을 평탄하게 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 땅의 운명은 쉽지 않고, 그들은 많은 시험을 치러야만 하고, 큰 능력과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굳은 의지가 요구되는 이 땅의 과제를 성취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혼들에게 측량할 수 없게 제공이 되어, 혼들이 단지 목표를 추구한다면, 혼들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아멘

저세상에서 주는 빛.

B.D. No. 6735

1957년 1월 13일

내가 내 말씀을 이 땅으로 전할 수 있는 곳에서 밝은 빛이 저세상의 혼들에게 비춘다. 이런 혼들 주변의 어두움은 자주 너무 깊어 혼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이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 빛을 향한 갈망이 그들 안에 깨어나면, 나는 또한 그들에게 빛의 원천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들의 성장이 시작되고 처음에는 성장을 거의 알아볼 수 없지만 한번 빛의 광선이 볼 수 있는 곳을 찾은 혼은 항상 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혼이 어두움 속으로 가라앉을 위험이 더 이상 없게 된다.

그러나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더 많은 빛을 갈망하게 만드는 빛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냐? 어두운 영역에서 무관심하게 사는 혼들은 힘이 없고 그들의 주변의 어떤 것도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살아 있고 소멸되지 않았음을 알고 이런 의식이 그를 아주 고통스럽게 한다. 왜냐하면 비록 이 땅에서 얻은 지식이 그를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그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이제 자신이 자신의 불행한 상태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상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와 무엇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한다. 그런 질문하는 생각이 그들 안에서 떠오르면, 내가 그런 질문들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직접 답을 줄 수 없고 그들이 단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기회를 준다.

그런 모든 질문과 답을 얻으려는 소원이 이미 빛을 향한 갈망이다. 혼의 모든 무지는 어두움과 같고 모든 올바른 지식은 빛이다. 더 이상 육체 안에 거하지 않는 혼은 다시 말해 육체의 눈을 통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혼이 완전히 무지한 동안에는 그의 눈이 멀고 그러므로 그의 주변이 한 밤중이 된다. 그러나 혼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고 혼이 깨닫게 할 수 있다. 혼이 이런 설명을 자원하여 듣는다면, 혼은 또한 밤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혼은 처음으로 여명의 상태에 들어가고 선명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 가운데 행복감을 느끼고 혼의 내면에 점점 더 빛이 임하게 된다. 혼은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혼에게 그 안에서 편안함을 주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내면의 빛의 상태가 혼을 행복하게 한다. 왜냐면 혼이 이제 또한 자신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게다가 혼 앞에 일할 영역이 놓여 있고 이전의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혼에게 일할 영역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자극을 준다. 왜냐면 혼이 이제 일할 힘을 느끼고 사랑을 행하려는 갈망이 이제 혼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내 말씀이 들리는 곳은 이제 밝은 빛이 비추고 수많은 혼을 끌어들이는 깨달음의 장소가 된다. 그러나 이 장소는 단지 어두움을 꿰뚫고 보는 빛을 갈망하는 혼들에게 보인다. 왜냐면 아주 깊이 타락해서 빛을 고통으로 느끼고 빛을 피하는 혼들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빛이 그들의 타락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빛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은 빛에 맞서 싸운다.

그러나 그런 혼들은 물리침을 받는 반면에 빛을 갈망하는 모든 혼들은 이끌림을 받거나 또는 도움을 줄 준비가 존재들에게 인도 된다. 그러면 혼들은 그곳에서 그들에게 선포되는 내용을 저항하지 않고 듣고 이미 어두움의 상태에서 여명의 상태로 변하기 시작한다. 이런 혼들 안에 생명을 향한 갈망이 살아나고 혼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한다. 혼들은 활동하기 위해 살기를 원하고 그들의 의지가 이제 그들이 힘을 얻게 한다.

빛은 지식이고 빛은 진리이다. 그러므로 빛이 어두움 속에 있는 혼들에게 공급돼야만 하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질 때,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내 영을 통해 너희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할 때, 너희는 빛을 갈망하는 혼들과 빛의 전달에 참여하기 원하는 혼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씀을 받기 위해 나와 연결을 이루면, 수많은 혼들을 끌어들이는 빛이 항상 비추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영의 나라에서는 빛을 항상 단지 내가 순수한 진리를 공급해주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빛은 깨달음이고 빛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너희 사람들이 축복되게 되도록 나 자신이 이 땅으로 전해준 지식이다. 그러나 너희가 항상 단지 영원한 빛인 나와 연결을 이룰 때 이런 지식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저세상에서의 사역. 진리를 전하는 일.

B.D. No. 8083

1962년 1월 20일

진리가 없이 너희는 축복될 수 없다. 왜냐면 진리는 빛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언젠가 저세상에 가게 되면, 너희에게 아직 붙어 있는 모든 오류들은 빛을 어둡게 할 것이다. 오류

는 너희의 빛을 비추이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 혼이 스스로 구속하는 일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혼은 단지 구속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혼은 비록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이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둠 가운데 거할 필요 없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빛을 소유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빛을 발산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된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야만 한다. 그들은 잘못 된 생각을 의미하는 모든 그림자를 자신으로부터 버려야 한다. 그들은 순수한 진리를 갈망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이 진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가장 밝은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 질 것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혼들에게 빛을 전달해주고 그들이 잘못 된 생각으로부터 떠날 수 있게 돕고 그들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하는 데에 너희의 저세상에서의 축복이 달려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만 한다.

왜냐면 진리가 그들이 오류 가운데 올바르게 찾을 수 없었던 나를 찾게 해주기 때문이다. 잘못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세상으로 간다. 너희는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는 이런 혼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 즉 그들을 구속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스스로 빛 가운데 서야만 한다. 너희는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스스로 진리의 합당하지 않은 지식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려고 해야만 한다. 너희의 이 땅의 삶이 사랑의 역사였다면, 너희가 이 땅의 육신을 벗게 될 때에 올바른 지식을 갑자기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밝은 빛 가운데 서게 될 것이고 이제 다른 혼들을 위해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주 혼은 그가 이 땅에서 주장했던 지식을 고수한다. 그러면 그의 상태는 축복 되지 못한다. 그가 스스로 진리의 가르침 받을 자세가 되어 있을 때까지 그가 잘못 된 지식을 버리고 서서히 비추기 시작하는 비추이는 능력을 가진 빛이 증가할 때까지 다시 말해 빛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혼이 어둠을 빠져나오게 도움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항상 단지 여명의 상태에 거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미 진리를 영접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왜냐면 선명하고 분명하게 높은 곳을 향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빛이기 때문이다. 이는 영의 나라에서 축복을 의미한다. 왜냐면 혼이 이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사랑이 너희 사람들에게 빛을 준다.

비록 사람에게 영적인 지식이 없을지라도 그는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알고 축복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에게 진리가 전해지면, 진리에 대해 거부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저세상에 들어갈 때 큰 유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이제 그가 내 사랑의 계명을 성취함으로써 이 땅에서 벌어들인 보물들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부유하게 복되게 될 것이다. 그는 영의 나라에서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게 역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빛은 이에 합당하게 밝고 축복될 것이다. 사랑이 없이 이 땅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비록 사랑의 정도가 낮을지라도 그러나 이는 항상 작은 빛을 의미하고 그가 저세상에 들어가면 이 작은 빛은 그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진리 안에서 거하는지 또는 오류 가운데 거하는지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전에 모든 오류를 버리려고 해야만 한다. 너희는 저세상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전에 너희는 순수한 진리를 영접해야만 한다.

왜냐면 축복은 구속하는 사역을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스스로 빛 가운데 있는 혼들이 그러므로 순수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 가운데 있는 혼들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이혼은 영원한 진리인 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나와 연결이 축복 되길 원하고 영원이 축복되게 남기를 원하는 모든 혼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이다.

아멘

높은 곳에서 오는 빛.

B.D. No. 3774

1946년 5월 18일

하늘은 하늘의 빛을 이 땅에 비추지만, 땅은 어둡게 머물고, 빛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왜냐면 이 땅의 거주자들이 그들의 눈을 때로는 불의 빛을 발산하는, 그러나 단지 사탄의 속이는 역사인, 어두움의 나라로 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탐욕스럽게 이런 거짓 빛을 붙잡고, 높은 곳에서 오는 부드러운 빛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부드러운 빛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어두움의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밤을 떠나 밝은 아침을 향해 간다.

너희 사람들은 왜 하늘에서 오는 빛을 받기를 주저하느냐? 너희는 왜 거짓 빛을 쫓고, 거짓 빛이 가치가 없음을 배우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깊은 곳에서 너희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을 높은 곳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너희를 영의 어두움 속에 가두고 있는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는 의지를 갖지 않느냐? 왜냐면 너희가 더 이상 빛을 주는 분을, 전능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충만하고, 또한 너희를 창조한, 그러나 진실로 너희가 추구하는 목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창조주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일이 이미 너희의 육체의 죽음의 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희의 존재가 얼마나 내용이 없는 지를 생각해보라. 너희 육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너희가 열심히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 일이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고, 이 땅의 재물이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냐! 그러면 너희의 혼은 끔찍한 운명에 직면하게 된다. 왜냐면 혼에게 영적인 소유물이 전혀 없고, 이로써 힘이 없고, 죽었지만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다. 빛의 전달자들이 너희의 길에서 나타나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에 대해 생각하라. 너희가 진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그들의 말이 빈 말이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너희가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무한의 세계를 보내는 생각과 질문을 통해 창조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라.

하늘에서 오는 빛이 너희에게 닿을 것이고, 너희는 빛의 축복을 느낄 것이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빛이 너희 심장 안으로 임할 것이고, 너희의 영이 밝아 질 것이고, 더 밝은 빛을 향한 갈망이 너희 안에서 활기 있게 되고, 성취될 것이다. 높은 곳에서 온 빛이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

게 하라. 이 빛을 피하지 말라. 왜냐면 유일하게 이런 빛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거짓 빛이 아니고, 너희에게 영적인 재물을 주고, 영적인 재물을 추구하는 일은 너희에게 축복을 의미하고, 축복되게 하기 때문이다. 어두움을 피하라,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영원한 빛.

B.D. No. 7719

1960년 10월 3일

너희는 내 안에서 영원히 비추는 무한한 세계를 향해 발산되는 너희 심장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로써 너희 심장이 밝게 하고 모든 어두움이 떠나게 하는 빛을 깨닫는다. 나는 영원한 빛이고 어두움에 싸여 있기 때문에 너희 사람들에게 축복되지 못한 거처인 이 땅에 임했다.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해 사람들 안에 빛을 밝혔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주었고 그들이 이 가르침을 따르면, 그들에게 확실하게 깨달음을 주었을 것이다.

깨달음은 빛이다. 깨달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순수한 진리를 아는 지식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빛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보여주었다. 나는 반박할 수 없게 사람들에게 지혜를 줘야만 하는 사랑의 길을 알려 주었다. 왜냐면 사랑의 불이 지혜의 빛을 발산하기 때문이다. 빛이 이 땅에 임했다. 그러므로 사랑이 이 땅에 임한 것이다. 이 사랑이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 빛의 원래 근원이다. 너희는 나를 빛의 근원으로 깨달아야 한다. 너희는 내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과 그러므로 제한이 없는 지혜여야만 함을 알아야 하고 내 사랑의 비추임을 받은 사람은 깊은 지혜로 인도 받음을 이로써 깨달음 가운데 서게 됨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이 전에 사랑을 일깨우지 못하면, 알게 될 수 없고 그러므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면 불이 없이 빛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사랑이 없이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이 깨달음이 성장하기 원하면, 너희는 먼저 사랑이 성장하게 노력해야만 한다. 이로써 항상 사랑의 정도를 높여야만 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 안에 빛이 있고 전에는 아직 어두웠던 모든 것을 밝게 밝혀 주기 때문이다. 너희는 항상 단지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요청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해야 한다. 이런 기도는 진실로 너희에게 응답이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긴밀한 기도를 통해 힘의 원천과 사랑과 빛의 원천과 연결을 이루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선물할 수 있고 선물 해주기 원하는 분과 연결이 된다. 그러나 그는 너희 스스로 이를 구하기를 원한다. 왜냐면 너희의 의지가 그에게 속하면, 그가 역사하는데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다가가서 진실로 너희 안에 깨달음의 빛을 밝혀준다. 나는 진실로 너희를 영의 어두움 가운데 놔두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가 이제 사랑을 하는데 활용하는 능력을 활용하면 너희 안에 빛이 밝혀질 것이고 너희가 깨달음을 얻는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이성인 너희에게 진리에 합당한 지식을 줄 수 없음을 또는 너희가 이 지식을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이해할 것이다. 왜냐면 깨달음은 지혜이기 때문이다. 지혜는 나로부터 나온 빛과 축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런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 왜냐면 이런 지식은 영원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식은 세상 지식처럼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 지식은 혼이 이를 가지고 언젠가 저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너희 사람들을 위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로부터 온 빛을 갈망해야 한다. 너희는 빛 자신에게 너희는 깨우쳐 주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너희는 깨우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너희는 깨우침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기도를 통해 너희는 이미 영원한 빛과 관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영원한 빛의 비추임이 너희 심장에 임하고 너희 소원에 합당하게 너희를 도울 것이다. 빛과 사랑과 지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해 있다. 이 모든 것이 내 성품에 속해 있다. 하나를 다른 것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깨달음 가운데 있으면, 진리에 합당한 지식이 너희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면, 너희는 너희가 끝없는 기간 동안 머물렀던 어두움의 밤을 물리쳤다.

너희는 나에게 귀환하는 길에 들어섰다. 너희는 다시 빛을 향해 나간다. 너희는 내가 영원한 빛을 너희에게 비추게 한다. 너희는 너희의 성품을 원래의 성품으로 다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너희는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빛과 힘의 원천과 항상 연결 된 가운데 빛이 충만한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는 축복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축복되게 남을 것이다.

아멘